

北 버르장머리 확실히 고쳐야 한다

남북장관급회담이 북한의 6월6일 제안으로 서울에서 6년만에 열리는가 싶더니 11일 북측의 변덕으로 날아가 버렸다. 북한은 예비접촉을 위해 되살렸던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 전화선도 회담을 무산시키면서 다시 끊었다. 이제 남북관계는 여름 장마철 저지대의 하수구 처럼 꼭 막혀버렸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도

그로부터 5일만인 16일 북한은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북한의 6·16 대미제의에는 북핵 폐기에 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회담하려면 먼저 한국과 대화해야 하며 핵 폐기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와 관련, 행동은커녕 말 한마디 없으며 남한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는데서 북의 고위급회담을 받아들일 턱이 없다.

북한의 미·북대화 제의 저의는 박근혜 정부에 겁을 주기 위한데 있었다. 박 정부가 남북고위급회담에 뻔뻔하게 맞서자 미국과 대화에 들어가 박 정부를 고립시키겠다는 위협이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그것이었고 뻔히 들여다보이는 술수이며 유치하기 그지없는 책동이다.

북한의 유치한 작태는 버르장머리 없는 어린이에 같기도 하고 사이코(정신 신경증 환자) 같기도 하다. 조폭 같기도 하다. 한국정전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인 스웨덴의 안데르스 그렌스타드 해군소장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에 대해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건 북한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태는 분명히 북이 뚜렷한 목표아래 일관되게 움직인다는데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조선 적화통일 통일전선전략 교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꿈틀댄다는 점이다. 통일전선전략이란 사회계급이나 국가 또는 민족을 가리지 않고 회유하고 포섭하며 끌어들이며 적화 세력으로 통합(통일)하는 계획이다.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김일성의 1964년 ‘3대 혁명역량 강화’ 지시에 기초한다. 첫째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둘째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혁

명역량 강화, 셋째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 강화, 셋이 그것들이다.

북한의 6·6 고위급회담 제의도 당연히 통일전략 전술에 입각한 것이었다. 북의 6·6 제의 목표는 여섯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6월7~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되었던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북한은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함으로써 남북이 화해로 나가고 있다는 허상을 조작, 미·중 두 나라 정상들이

특별기고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
·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때도 처음엔 자신이 아니라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회담

여론을 화해 분위기로 몰아가 북핵 이슈를 묻어버리고 북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다져가려는데 있었다.

여섯째, 북한은 수석대표로 차관급을 내 보내 남측 장관과 대화케 함으로써 북한이 우위에 선다는 위상을 박근혜 정부로 부터 확보하려는데 있었다. 실상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를 우롱한다”며 고위급 예비회담을 하루 전에 깨버렸다.

성급한 성과기대 금물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6·6 당국회담을 제의하자 마치 북이 머리숙이고 들어오는 줄로 착각했다. 박 대통령은 “뒤늦게라도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당국회담이 순조롭게 전개될 것으로 성급히 속단한 탓이다. 통일부는 수석대표 자격시비로 예비회담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12일 장관급 회담은 확정적이다.”고 낙관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드디어 북측의 변화를 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6월13일 남한이 “신뢰 프로세스를 떠들지만...유신시대 썩먹은 대화있는 대결”에 불과하다며 공개버렸다. 청와대는 딱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격이다.

박근혜 대통령, 통일부, 청와대의 성급한 낙관은 그들이 북한의 ‘3대 혁명역량 강화’에 기초한 통일전선전략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북한은 남북간의 대화나 교류를 오직 남한 적화를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여길 뿐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도 똑 같이 통일전선전략의 외연으로 여길 따름이다.

박 대통령이 남북당국회담 무산을 각오하면서 ‘균형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바로잡고자 한 건 잘한 일이다. 박 대통령의 소신과 원칙이 작동한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꼭 막힌 남북관계를 뚫겠다고 서둘러선 아니 된다. 서둘러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종북정권 10년동안 잘못 길들여진 북한의 나쁜 버릇을 바로잡으려면 북한과의 대치국면은 한동안 불가피하다. 햇볕정책의 값비싼 대가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균형의 원칙’을 지켜가며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일 때 까지 성급히 낙관하지 말고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파탄, 주민들의 불만 고조, 국제적 고립 심화 등으로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다. [국]

남북관계 ‘균형의 원칙’ 지켜가야 대화진정성 보일때까지 인내를

김정은을 도발자로 몰아세우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데 있었다.

둘째, 개성공단 재가동을 유인책으로 삼아 6·15 선언 남북 공동축하행사를 성사시키고자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했던 공동행사를 박 대통령을 상대로 유도해내려는 알뜰한 통일전선전략이었다.

남남갈등 유발 속셈 드러나

셋째,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입맛대로 요리되지 않으면 회담을 무산시켜 남한이 대화를 했다고 덮어씌워 남북대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데 있었다.

넷째, 북한은 1 도발 - 2 협박 - 3 대화 - 4 보상 - 5 재도발 수순에 따라 남측을 대화장으로 불러내 경제지원을 얻어내려는데 있었다. 북한은 올 6월을 도발과 협박에 이은 대화 시기로 보고 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그동안 남측이 북한의 1, 2 단계인 도발과 협박에 시달린 나머지 북의 요구대로 순순히 끌려나오도록 지쳐있다고 오판, 대화를 제의한 것이었다.

다섯째, 고위급회담을 통해 국내외

하라고 했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따르면, 최고 정점에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밑에 남북 두 지역 정부를 두게 되어 있다. 김정일은 두 지역 정부위에 군림하고 남한 지역 정부 대통령인 김대중은 북한 지역 정부 대표인 김영남의 상대라고 간주한다. 북한의 차관 대 남한의 장관 대화 등식은 저 같은 고려연방제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1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수석대표로 남측 장관과 북측 차관급 대좌를 모두 받아들였다. 심지어 노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에게 “보고 드린다”며 상관 대하듯 했다. 그는 북방한계선 개정을 주장하는 김정일에게 “김 위원장과 내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등 굴종적이었다. 굴종을 넘어 이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종북 정권들에 의해 10여년 간 굴종적으로 묵과돼 왔던 남북회담의 불균형을 ‘균형의 원칙’대로 바로잡기로 했다. 남측도 차관급을 내세웠고 북한은 “우리

‘노무현 대북망언’ 용서 받을 수 없다

어쩌면 우리 역사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지냈는지, 한숨부터 나온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럽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공개되자 지금 온 국민은 충격과 흥분에 휩싸여 있다. 설마 김정일 앞에서 그렇게까지 굴욕적이고 반국가적인 망언을 늘어놓았을 까... 반신반의 하면서도 막상 녹취록이 공개되어 사실로 밝혀지자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과 욕설이 봇물처럼 넘쳐흐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서해 NLL(북방한계선)문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라는 사람이 대수롭지 않은 물건을 신심 쓰듯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이다. 발언내용을 보면 “NLL, 그것은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선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문제라고 하지만, 헌법문제는 절대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다. NLL같이 민감한 문제를 국민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대통령이 얼마든지 맞서 나갈 수 있다니 대단한 망발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 국방을 총책임진 국군통수권자가 적장(敵將)이나 다름없는 김정일 앞에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참기 어려운 대목은 “나는 5년 동안 북측의 6자회담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대변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6·25 참전언론인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됩니다”

(또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용어도 없애버렸고, 작전통제권도 환수중이라고 생색을 냈다. 노 대통령은 평소에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말해왔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 선이니 남측은 NLL을 주장하지

금강산관광사업도 북한조병에 의한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고, 개성공단도 북한의 돌발행위로 문을 닫았다. 그런데 서해 NLL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고 인천과 해주를 남북 공동경제구역으로 개발하자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남과 북이 고기를 잡다 충돌해서 연평해전이 수도 없이 벌어질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는 (자위적인 것으로)정당한 조치라며 북의 대변인 역할을 열심히 했더니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 지나치게 솔직하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앞뒤 분간도 못하는 함량미달의 저능인간인지 판단이 안서는 인물임을 여지없이 노출했다.

국가정보원의 남북 정상간 회의록 공개를 놓고 지금 여·야간에 찬반논쟁이 뜨겁다, 헌정사상 국가 정상간 대화가 이번처럼 공개된 전례가 없었는데 그 물이 깨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례’유무를 떠나 너무도 중대한 국가이익이 달린 문제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공개됨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다라고 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아니라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4]

북한 대변인 노릇까지 했더니 대통령으로 뽑은게 부끄러워

인 노릇을 해 왔다”고 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는 것인지, 국민이 언제 그런 임무(북쪽 대변인)까지 맡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일 앞에서 왜 그토록 설 설 기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노 전 대통령의 아부발언은 끝이 없었다. “영국도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는 북측의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NLL 포기의사를 시사했다. NLL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기본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도 공동개발하고, 인천과 해주를 엮어 공동 경제구역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착상은 이해가 된다. 말만은 참 듣기 좋다. 하지만 그런 동화책 같은 구상은 상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상대는 융통성이 없는 북한이다.

현대아산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한

취업인프라 구축해야 일자리공약 지켜진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늘리기 등 고용정책은 지금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실패 사례로 재임중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늘리기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롭고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역대정권처럼 일자리 부풀리기에 매달리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고용정책의 거듭되는 실패 원인은 정부와 학계 모두가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이에 따른 인력 수요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적절한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자리 늘리기와 고용문제는 정부가 단독으로 공권력과 공적자금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익창출을 목표로하는 인력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경기 부양책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관련제도의 뒷받침만 하면 되는데 정권창출을 위해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에 맞춘 허황된 선거공약을 대책도 없이 내놓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 선진국 모델을 강조하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이 로드맵의 핵심은 한 사람이 오래 일하는 대신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나눠 함께 일하자는 것이다.

이것으로 2017년까지 모두 28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 가운데 32%인 92만여 개가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이미 오래 전 네덜란드의 칼 반 월프렌교수가 “아픔을 나눠 아픔을 없앤다”는 이 제도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실패의 유산”이란 말을 인용해 그 문제점과 부작용을 주장한 것에 있다.

워크셰어링(worksharing), 또는 잡셰어링(jobsharing)이라고 불러 지고 있는 이 제도는 1. 경영부실로 기업이 긴급피난조치의 하나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독일). 2. 잉여인원과 정년이 임박한 해당자의 고용확보(일본). 3. 고용기회 및 실업대책(프랑스).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극 활용



박진서

·본회 회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전 아더앤더슨 컨설팅 한국 대표이사

(네덜란드) 등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모두가 6개월에서 1년간, 단기적인 긴급피난조치로 활용했으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늘리기 로드맵의 핵심이라는 시간제 일자리는 실행에 앞서 소득 특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근로자 등 노사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또 박대통령은 선진국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으며 이를 앞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고수입과 함께 활용되고 있고 단순 근로자에게는 생계가 어려운 정도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어떻게 답할 지

궁금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세계노동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약 9억명이 실업자이거나 실업자에 가깝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마다 5천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일자리가 급속히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연방노동부는 현재 일자리(job)의 90%가 머잖아 사라지고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금까지의 직종과 직업의 생성, 소멸 속도가 예상할 수 없게 빨라지고 이른바 X세대(18~35세)는 평생 5~7번 일자리를 바꾸게 되며 또 지금까지 일해 온 유사직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지금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새로운 역할과 일자리는 계속 생기는데 쓸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새로운 역할과 일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알맞은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취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4]

영화계, 좌파 손아귀에 놀고 있다

북한공작원을 등장시킨 강제규 감독의 액션 영화 ‘쉬리’가 1999년 우리 영화사상 최초로 5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대박을 터트린 후 우리 영화계가 ‘JSA’ ‘태극기를 휘날리며’ 등 남북 간의 갈등관계에 초점을 맞춘 영화들을 만들어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다.

시기적으로 햇볕정책을 표방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정부 시절이어서 남북 간의 대결보다는 갈등 속에서도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찾아보려는 잠재적 의식이 관객들의 발길을 영화관으로 향하게 했던 것 같다.

‘동막골’ 反美 메시지 강해

영화 ‘쉬리’는 치밀한 북한 여 공작원의 활약을 소재로 삼고 있지만 우리정부의 특수요원이 주인공인 반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시절인 2005년에 제작된 박광현 감독의 ‘동막골 사람들’은 북한군패잔병 3명이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비행기추락사고로 합류한 미연합군 스미스와 국군부대에서 탈영한 표 소위 그리고 또 한 명의 국군이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동막골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무수한 연합군 비행기의 불꽃놀이 같은 폭탄세례를 받고 행복한 최후를 맞는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대결과 갈등을 불식하고 모처럼 이루어진 평화와 화해의 장이 미군 폭격기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다는 반미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강하게 전하고 있다.

2006년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괴물’은 실제 괴물 같은 캐릭터를 등장시켜 관객 수 1000만을 헤아리게 했다. 괴물에게 잡혀간 여중생 딸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주인공의 모습이 감격적이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훌륭했다.

그런데 한강변에 나타난 괴물이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독극물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생겨났다는 설정이 지나치게 무리해서 잘 만든 영화가 미군이 만들어 놓은 괴물을 화염병을 던져 죽였다는 식의 ‘동막골 사람들’보다 더 유치한 반미영화가 됐다는 달갑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됐다. 정말 스틸 있는 좋은 영화였는데 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독극물 때문에 괴물이 생겨났다고 가당치 않은 설정을 했는지 지금도 봉준호 감독에게 묻고 싶다.

올해에 개봉된 류승완 감독 작품인 ‘베를린’과 장철수 감독 작품인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아예 북한공작원이 주인공이다. 관객들은 잘 생긴 북한공작원의 활약을 보면서 스틸을 느끼거나 바보 임무를 띤 북한공작원의 행태에 함께 웃고 웃으며 연민의 정을 느끼도록 만든다.

‘北 배신하면 보복’ 인식심어

1968년 1·21사태 때 ‘박정희 맥파

러 왔다’던 험상궂은 북한공작원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영화 ‘베를린’은 북한에서 특화된 무자비한 북한공작원이 서방으로 망명하려던 북한 대사를 추적하여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담아 북한을 배신하면 끝내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남한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변절한 3명의 북한 공작원들이 결국 북한의 지령에 따라 모두 살해되는 것으로 결말을



김진기

·본회 발전기획위원장
·전 KBS 해설위원

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낙산과 창신동 채석장 등지로 끌고 가 다발총을 쏘아 살해했다. 6·25남침을 당한 후 3일간 전방에서 전투 중 부상을 당해 서울대학 병원에 후송돼온 부상병이 800명 정도 됐다. 국군 경비병력 1개 소대가

끼’를 찾았다. 개가 없다고 하니 ‘국방군 개새끼’를 찾는다고 했다. 개새끼가 사람에 대한 욕이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서울에서는 고작 ‘나쁜놈’ ‘나쁜 자식’이 욕이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국방군 개새끼’들은 다 즉결처분했다. 국군뿐 아니라 체포된 경찰

이막스를 이루는 부분에서는 고지 정상을 놓고 쌍방간에 육박전이 벌어지는데 ‘동막골 사람들’에서처럼 미군 비행기들이 나타나 무차별 폭격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영화상 심사위원 좌파가 판쳐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달리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는 관객들의 오판을 막기 위해 사실에 근거해야하고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2007년 김지훈 감독 작품 ‘화려한 휴가’와 오명 감독의 최근 작품 ‘지슬’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48년 4·3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국군에 대해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들을 어느 시점에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일이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이지만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상황 아래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적대시하도록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영화 ‘고지전’이 보수적인 신문이 주관하는 영화제에서 11개 부문에 수상후보로 지명됐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어떻게 이런 영화가 수상후보로 선정 될 수 있느냐고 항의 했더니 신문사측 답변이 결박이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영화계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는데 그들이 대부분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국민들은 좌파세력에 대해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판단을 내려주었는데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계는 아직도 좌파세력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실감 있게 느껴졌다. 무감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 ‘연평해전’을 위해 해군가족들이 벌이는 모금운동에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본다. [4]

국군모욕-미군만행 부각시키며 인민군-북공작원은 인간적 묘사

짓는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 6월 19일 이른바 인민보안부 담화를 통해 김정을 비하하고 모독한 탈북자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했다고 위협해 북한을 배반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영화상의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도 우리 영화제작자들은 북한공작원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를 만들고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은 팝콘을 먹으며 무감각하게 이런 영화들을 보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가? 이상한 나라인가? 무감각시대에 살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2011년 장훈 감독이 만든 ‘고지전’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군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악질적인 영화다. 6·25때 남침해온 북한군 지휘관이 포로로 잡힌 국군에게 이렇게 말한다.

“국군은 목적없는 군대” 힐난

“너희가 왜 지는 줄 알아? 너희는 목적이 없는 군대야!” 국군은 ‘목적이 없는 군대’라고 힐난한다. 국군은 목적이 없는 군대라고 힐난하는 대사가 영화관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어서 그런지 우리 국군당국은 물론 막강한 재향군인회도 아무런 말이 없다.

북한군 지휘관은 말을 마친 후 국군포로를 풀어주는 자비를 베푼다. 6·25때 남침해온 북한군에게 ‘자비’란 없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개새

분전했지만 모두 사살되고 북한군은 입원해있던 부상병과 의료진까지 약 900명을 대학병원 뒷동산으로 차례로 끌어 내 모두 살해했다. 당시 학살된 부상병들을 추모하는 현충탑이 지금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 쓸쓸히 세워져 있다. 북한군이 부상병들까지 다 학살했는데 국군포로를 살려 보내다니 영화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지전’은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협정발효까지 12시간 동안 빔어진 고지쟁탈전을 그린 영화인데 북한군은 국군포로에게 자비심을 베풀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이 아리따운 여군 저격병과 함께 등장하고 국군은 정신이상자에 마약쟁이와 중대장을 사살하는 하극상까지 빚는 인물들로 구성이 돼서 정말 목적이 없는 군대라는 북한군 지휘관의 대사를 실감 있게 입증해 주고 있다. 영화 클라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평가 2년연속 A등급

언론가 소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사진)은 지난 6월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A등급, 기관 B등급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모두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 평가로

특히 기관장은 2년 연속 A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 대상은 △기관평가 111개(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32개, 강소형기관 51개) △기관장평가 96명(공기업 18명, 준정부기관 73명, 기타공공기관 5명)이었다.

한국일보 창간 59주년 기념식

한국일보 창간 59주년 기념식이 지난 6월 7일 중구 남대문로 한국일보 본사 2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原電부정 커커이 얹힌 사슬 끊어야

원전비리의 시말을 살펴보면 한 국사회의 해묵은 부패의 골이 얼마나 뿌리 깊고 심각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번에 밝혀진 원전비리는 기업과 공직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동원해서 범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부정한 돈 거래,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에 따른 봐주기, 서류 위조, 사기, 공직자의 타성적 태만, 정부의 허술한 감사, 이 모든 것이 합작해서 빚어낸 것이 최근 드러난 원전 비리의 내용이었다.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수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원전관련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며 감사원과 검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조사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더 넓은 범위로 사태가 파급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민간인 부품업체는 물론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 원자력,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련 부서의 전·현직 정부 책임자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비리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다. 2012년 11월에는 부품 업체들이 성능 시험도 거치지 않은 미검증 제품을 납품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이번에는 원자력발전소에 시험 성적서가 변조된 불법 케이블이 사용돼 원전이 무더기로 가동 중단되었다. 외국 시험기관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을 시험 성적서를 변조해서 납품하는 상식 밖의 일이 생긴 것이다. 작년에 부품 업체들이 납품한 미검증 부품들은 퓨즈, 계전기 스위치 같은 일반 산업체에서도 쓰는 부품들로서 원전의 안전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제어 케이블은 원전 사고 때 핵 연료를 냉각시키고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안전 설비에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 같은 핵심부품을 부품 안전성을 관장하는 검증기관이 해외 시험기관이 보내온 시험 성적서의 그래프를 변조해서 불량품의 납품을 가능케 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도 무시

외국의 예를 보아 원자력발전소의 대형사고가 핵심부품의 결함이나 손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지만 핵심부품이 아닌 변두리 부품의 작은 결함으로도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같은 치명적 사고를 불러 올 수 있었듯이 원전의 대형사고도 핵심이 아닌 작은 부품의 불량 때문에 초래될 수도 있는 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의 시험 성적서 위조사건 직후 민간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전국 원전을 대상으로 4만5천개 부품의 인증 과정에 대해 전수(全數)조사를 벌였다. 그런대도 제

어 케이블의 성적서 변조를 적발하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태가 표출되기한 달 전 쯤 외부 제보를 받고서야 조사에 나서 시험 성적서 변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안전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는 무책임한 일이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있다. 작년 12월에 내놓은 감사원의 원전 감사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작년 2월에 단전사고를 빚은 고리 1호기의 경우 이미 2007년 2월의 성능 진단에서 "비상 디젤발전기의 솔레노이드 밸브는 고장률이 높으므로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리원전은 이중화를 하지 않고 있다가 2개월 후 누전사고로



이 형

·본회 원로회우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본과 가짜 직인을 모르고 납품을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한수원과 납품업체들 사이의 유착 없이는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유착에 대한 심증을 굳혀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부른 위조된 테스트 증명서

의 불량부품은 대기업인 LS 그룹의 계열사 JS전선이 제작한 것이다. 증명서를 위조한 업체는 정부가 국내 1호 원자력 성능 검증업체로 지정된 새한티이피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새한티이피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창(원자력 기술상)을 받은 업체이다. 불량부품 제작회사인 JS전선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테스트 증명서가 위조된 제어 케이블을 신고리

위이다. 불량품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 우진의 납품 케이블은 원전로 내부의 온도 습도 압력 등의 신호를 제어 계통에 전달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 경고 신호를 보내는 핵심부품이다.

피해액수 계산못할 정도로 커

원전 부품 비리 사태는 대충 종잡아서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에 납품된 6천만원 남짓의 원전 부품 때문에 3조원 가까운 돈을 날려 보내게 생겼다고 한다. 원전 3기의 가동 중지료 한전은 불량품을 교체하고 재가동할 때까지 약 6개월 간 대체 생산 전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에 지급될 돈이 약 2조원 남짓, 한국수력 원자력은 원전 정지로 줄어드는 매출액이 4천 5백억원 정도, 두곳을 합쳐서 2조5천억원 가량이 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력 소비가 큰 업체들에 전력사용을 제한시키는 보상으로 6개월에 2천 5백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 돈은 국민이 적립한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비리의 뒷수습을 하게되는 셈이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손실도 만만치가 않다. 전력 공급의 부족으로 국민이 겪는 불편은 차치하고라도 산업체의 생산 차질 때문에 입는 손실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쉬 짐작이 간다. 더욱이나 국제적으로 추락된 한국 원자력산업의 신용도 때문에 원전 기술 수출이나 원자력발전소 설립 공사 수주에서 우리나라가 입을 막대한 어려움과 지장을 생각한다면 피해액은 계산이 안 될 만큼 엄청난 큰 덩어리로 불어날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원전의 굵은 부위를 어떻게 색출하고 어떻게 도려낼 것인지, 앞으로의 부패방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방안의 제시는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비리에 관련된 범법자의 철저한 색출과 처벌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것 만으로 문제가 매듭지어진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정부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커커이 쌓이고 얹혀있는 비리의 사슬을 근원적으로 끊어야하고 수제 비리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서로가 봐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상하관계와 동료 의식이 나쁜 일에 쓰여지지 못하도록 정리해야 할 것이며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실관계로 한국의 검증 계통이 부실해서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외국의 권위있는 검증 업체에 검증사업을 위촉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의 유지가 꼭 있어야할 여건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원전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조치는 단호해야 할 것이다. [K]

기업-공직자 '비리백화점' 인상 과감한 인적-기술적 조치 필요

외부전력이 끊겼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겪고도 고리원전 측은 솔레노이드 밸브의 부품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단 한 개 갖고 있던 예비품을 고장 난 비상발전기에 끼워 넣은 후 이중화할 노력은커녕 예비부품 없이 무리하게 운영을 계속하다가 결국 작년 2월 다시 사고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문제가 된 솔레노이드 밸브뿐만 아니라 비상시 원전의 복구 등을 위해 반드시 보유토록 지정된 필수 예비품목 9만4천개 가운데 41.4%인 3만9천개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2009년 1월의 고리 2호기 가동 중단 사고 때도 여분의 부품이 없어 황급히 국내 업체에 주문을 했는데 그 바람에 5일 동안 원전을 가동하지 못했다.

담합증거 보고도 낙찰자 선정

한수원의 두 납품업체는 과거에 발급받은 부품 성능시험 성적서를 복사해서 번호와 날짜를 고치거나 공인기관의 가짜 직인을 만들어 찍은 87건의 허가 시험 성적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후 960여개 부품을 납품했다. 한수원은 시험성적서의 진짜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납품업체들은 다른 업체를 담합 입찰에 들리기로 세우고 자기 업체와 똑 같은 내용의 기술 용역 보고서 제출토록 했는데도 한수원 측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명확한 담합 증거를 보고서도 이를 간과, 그냥 낙찰자를 결정했다. 그러한 복사

원전 1, 2, 3, 4 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납품했다. 새한티이피는 검사장비가 없어 캐나다 업체에 제어 케이블 검사를 의뢰했고 여기서 보낸 시험결과에서 불합격 부분을 오려내 합격 증명서로 위조한 업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에 해당 케이블이 원전사고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불량품임을 확인했다. 결국 원전 비리는 대기업과 정부인증업체가 함께 꾸민 합작품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일인 것이 밝혀진 셈이다.

또 새한티이피는 종전에 알려진 JS전선이 만든 제어 케이블 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업체인 우진이 만든 신호·전원 공급 케이블의 검증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한티이피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검증서를 위조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우진이 생산한 부품들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신고리 3호기에 납품돼 해당부품 전면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진은 2010년 10월 한국수력 원자력과 신고리 3, 4호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등에 대한 총 46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인 2011년 1월 새한티이피에 4억원 대의 검증비용을 지급했으며 그해 11월에 새한티이피로부터 합격 성적서를 받아 한 전기기술의 최종 승인을 받았었다. 그후 확인된 바로는 새한티이피는 우진이 만든 케이블을 아예 시험도 하지 않고 검증 합격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사기이며 국민의 위험을 외면한 질 나쁜 돈벌이 행

한국언론 '게이트키퍼' 역할 잃었다

여러해전 미국 미시간 주에서 법원·경찰 출입기자 시절, 처음으로 다친 고민은 그 많은 분량의 취재자료를 어떻게 단시간에 선별하고 분류하여 다음날 신문에 기사화해서 올리느냐 하는 것이었다. 우선 아침에 담당 경찰서 (시 경찰, 카운티 셰리프, 주 경찰)를 두루 섭렵하며 수북히 쌓인 사건기록 (Incident Report)들을 신속하게 훑어 가면서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작업이 이만 저만 집중력을 요하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지 모른다.

어쩌다 중요한 기사를 빠뜨리기도 한다면 나중에 겪을 곤욕은 기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방법원과 순회법원의 일일 일정표 (Docket)는 수십페이지가 넘는다. 그중에서 꼭 취재해야 할 사안만 뽑아서 해당 범정에 들어가 취재를 한다. 큰 사건일수록 배심원 선출에만 2~3일씩 걸리는데 매일 새로운 각도로 진행 상황을 보도 하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니다.

정보홍수 속 기삿감 선별 어려워

지금 지나고 보면 당시 기자로서의 기본역할은 정보의 홍수속에 먹잇감 (기사거리)을 골라서 보도하는 것이었다. 저널리즘 개론에 나오는 소위 '수문장' (Gatekeeper)의 이론이다. 무엇이 다음날 신문에 보도되는가를 취사선택 하는 것은 언론, 그 중에서도 기자와 편집자의 판단과 재량이 다. 폭주하는 정보의 파도를 헤치고 속아내고 걸러내고 선별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정보의 쓰나미에 쓸려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집실 (Newsroom)을 거쳐가는 정보량의 10 퍼센트 미만 정도가 기사화 된다는 연구조사도 있었다. 그러기에 90 퍼센트를 버려야 하는 수문장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지 않을 수 없다. 알리고(Inform) 계도 하고(Educate) 풍요롭게(Enrich) 하는 언론의 역할은 곧 이 수문장의 존재 이유이다. 언론은 통가시킨 10 퍼센트의 정보뿐 아니라 휴지통에 버려진, 그래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90 퍼센트의 정보에도 책임을 져야한다.

수문장 정신 못차릴 상태

지난 수십년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국 신문을 읽어 오면서 (처음에는 한국서 우송, 다음에는 미국판과 함께 재 인쇄되는 '모국소식', 그리고 최근 몇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한국 언론의 수문장 역할은 점점 퇴색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성문을 지키며 호패가 있는 사람만 성안에 들여보내야 하는데 엄청난 수의 군중이 일시에 몰려와 일일이 호패 검색을 할 수 없을 뿐 더러 여기자 성문이 새로 뚫리고 개구멍으로 드나드는 놈, 성벽을 뛰어 넘는 놈등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한국언론이 봉착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

한세기 이상을 누려온 인쇄매체의 군림적 위상은 처음에는 라디오, 다음에는 텔레비전의 도전을 받고도 견고히 유지될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휴대전화, 트위터등 IT 산업의 폭증으로 인쇄매체는 우선 신속성, 확산성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개구멍으로 유입되는 정보와 경쟁하려면 역시 개구멍식 보도가 불가피하게 되거나 앓을는지? 아예 문을 닫고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내가 30년 가까이 기자생활을 했던 신문사도 120년의 역사를 접고 문을 닫았다. 물론 인터넷판이 있지만 매일 갓 인쇄

특별기고



卞鍾和

·재미 원로언론인
·전 앤 아베뉴스 기자

시도해 보았는지도 의문이다. 적어도 911신고 녹취록쯤은 얻어낼 수 있지 않았을는지. 하여튼 2013년 5월 7~20일은 가히 한국 언론사 암흑의 2주간이라 할 수 있다. 오늘 한국언론이 처한 딜레마는 언론의 품위와 책임을 지키며 동시에 신속성과 확산성의 열세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미국언론에도 암흑기가 있었다. 1883년 창간된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New York Journal'과 1896년 조셉 풀리처가 시작한 'New York World' 간의 선정적 보도와 치열한 판매부수 경쟁은 황색언론 (Yellow Journalism)과 추문 폭로언론

윤창중사건 '개구멍식보도'판쳐 전화 교환원처럼 소문전달 매달려

된 신문의 잉크냄새를 맡던 시절은 영영 가버린 것일까?

추측·상상력 가공제품 인상

오직 한가지 기자라는 천직을 생명처럼 지키던 수문장은 녀를 잃고 나자빠져 있고 이제 언론은 전화 교환대로 변신하고 있는 듯 싶다. 전화 교환원은 사색과 평가와 판단의 거를이 없다. 그저 이쪽 번호와 저쪽 번호를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윤창중 사건을 처음 제보한 '미시USA'의 경우이다. 한국의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 해외순방중 인턴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내용이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작은 박스의 호소문 형식이였다. 한국의 주류언론은 순식간에 이 미끼를 덥석 물었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 버렸다.

수문장의 역할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개구멍식 보도'는 연일 그칠줄 몰랐다. 거기에 촌각을 다투는 웹사이트, 이메일, 트위터, SNS, 블로그의 과잉공세. 그것을 또 여과없이 전달하는 주류언론. 사건 보도의 철칙인 피해자 (Victim), 피의자 (Suspect), 증인 (Witness)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된 보도가 아니라 몇다리 건너 나온 전문(傳聞·Hearsay)에 추측과 상상력을 가미한 가공제품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공공 기관을 상대로 취재 활동을 벌일때 문이 막히면 흔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Muckraking Journalism)이란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미국 언론의 중흥기는 20세기초 언론의 전문성과 품위 향상을 위한 자성의 소리가 커지면서 컬럼비아 대학 등에 저널리즘 스쿨이 생기고 내셔널 프레스클럽이 탄생하고 언론과 언론인 윤리강령, 품위 조례가 만들어진 그 시기,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탐사 공익 보도의 신 전통을 수립한 1970~80년대를 꼽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언론도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한 재탄생의 몸부림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수문장 역할은 점차 주류언론의 영역을 떠나 소비자 (독자, 시청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 시류가 아닌가 싶다.

뉴스는 있되 벨류는 사라져

해외 학자들은 앞으로 저널리즘은 네가지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즉 사물화 (私物化·Personalization), 세계화 (世界化·Globalization), 현지화 (現地化·Localization) 및 영세화 (零細化·Pauperization)를 말한다. 누구나 손바닥 만한 계기 하나만 있으면 거대한 신문 방송사와 맞먹을 수 있다는 애기다. 한국의 경우 이것은 근대 정치사에서 소위 '평준화', '민주화', '계층간 위화감 불식'의 물결에 기존의 제도적 질서와 서열이 파괴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그 과정에서 창의력과 경쟁력은 쇠퇴하고 안가진자의 권리가 가진자의 책임과 부담을 가중시키며 압박하는 부작용이 불가피해진다. 평준화의 소용돌이속에 계급 (Class) 타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등급 (Grade) 파괴마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등급은 사회질서 유지의 버팀목이다. 이것은 계급과는 다르다. 학교에는 학년이 있고 부동산에는 시장가격이 매겨진다. 한우와 멸치에 까지 등급이 있다.

인쇄 매체는 판매부수로, 텔레비전은 시청률로 등급이 매겨진다. 그것이 곧 광고수입을 결정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매길 수 없는 등급이 있다. 그것을 뉴스벨류라 불려도 좋다.

과거 300, 400대 1의 경쟁을 뚫고 기자가 된 기라성 같은 선배, 원로 언론인들은 숙련된 전문적 선별력을 통하여 수문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 기자, 편집인의 입장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편집실은 이미 예전의 경기장 (Playing Field)이 아니다. 지금은 사이버 공간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 과연 예전처럼 편집실의 권위와 품위, 호통을 행사할 수 있을까?

서글퍼 진다.

뉴스는 있되 뉴스 벨류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언론의 모습은 아닌지? [7]

병무청 '병역명문가 시상식'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지난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1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가졌다.

3대의 모든 병역의무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이 행사에서 후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박창명 병무청장과



함께 공정병역 퍼포먼스에 참석했다. [8]



다부동 전적지 구국용사 충훈비에 경례하는 6·25참전 언론인단.



국립 영천호국원 현충문 앞에선 6·25참전 언론인단.

아! 영천, 다부동 ... 血戰의 현장에 다시서다

대한언론인회 6·25참전 언론인단 낙동강유역 전적지 답사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 6·25 참전언론인 등 35명은 서울지방보훈청 후원으로 6월 21일 국립영천호국원과 낙동강 일원의 6·25전적지를 찾아 구국용사충훈비에 헌화하는 등 호국보훈의 뜻을 기렸다. 박기병 6·25 참전언론인회 회장등 참전언론인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신우식 제재형 본회 고문과 홍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다수가 동참했다.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 언론인단은 특히 전적지를 답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적화야육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별항 참조)를 발표하고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해서는 미리 준비해간 ‘호국간성정예장교양성’(護國干城精銳將校養成)이란 휘호를 기증했다. 6·25참전언론인들은 지난해 7월에도 춘천 양구지역 전적지를 답사하고 최전방 장병들을 위문한바 있다. 다음은 이날 6·25 참전언론인들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소감이다.

국립 영천호국원 참배

6월 21일 아침 7시 50분 6·25 참전언론인들 30여명을 태운 버스가 국립영천호국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50분. 노구를 이끌고 63년 전 전국 최대 격전지였던 이곳 낙동강유역 전적지를 찾은 참전 언론인들의 감회가 어떠했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먼저 호국영령의 승천을 기원하는 비천상을 좌우측으로 하여 우뚝 솟은 충훈탑(126m) 아래서 엄숙한 참배의식이 거행됐다.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과 박기병 6·25 참전언론인회 회장의 헌화와 분향, 다함께 묵념을 올리니 그 경건하고 엄숙함이 하늘에 닿는 느낌이다. 마침 6·25참전유공자 안장묘역이 눈에 들어와 알아보니 군인, 학도병, 유격대원, 소방·철도공무원, 종군기자, 참전노무자 등이 이 묘역에 안장됐으나 현재는 묘역이 만장(滿葬)되어 총령당(봉안당)에 모셔진다고 한다.

이어서 찾은 곳은 영천대첩비. 충훈탑 아래 자리한 영천대첩비는 6·25전쟁 중 전쟁승패의 분수령이었던 영천전투



영천 호국원경내 전적기념탑 앞에서 지용우 회우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北규탄-안보의식 제고 촉구 6·25 참전 언론인단 성명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야기된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 난지 63년, 그 휴전 60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처절했던 낙동강유역 전적지를 답사하고 북한 공산독재정권의 변함없는 적화통일 야욕과 간단없이 자행되어온 대남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첫째, 북한 공산정권은 휴전이후 1·21 사태를 비롯해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잔인무도한 무력도발을 자행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부단히 위반해왔다. 우리는 북한 공산정권의 이 같은 호전성과 적화통일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이 다시는 이런 무력도발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국방력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것이며 긴밀한 한미군사동맹을 비롯한 효과적인 대북억지전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6·25 남침전쟁이 남긴 엄청난 희생이 모두 북한 공산집단의 오판과 만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사회 각 분야에서 반국가적 반민족적 작태를 서슴지 않는 종북·좌익 세력과 일부 젊은 세대들의 왜곡된 안보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정부 당국은 국민 계층 간에 총체적으로 해이해진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바로 일으며 세우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21일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 일동

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다. 영천대첩은 알려진 대로 6·25전쟁 중 낙동강 방어선상의 전략적 요충지인 영천에서 10일간의 공방전 끝에 북한군 15사단을 궤멸시킴으로써 인천상륙작전과 북진의 발판을 마련한 기

념비적인 전투 중 하나다. 기념비석엔 문준철 본회 원로회우의 이름도 선명하게 각인돼 있어 참가자 모두의 눈길을 끌었다.

이 영천전투에서 적 사살 3,799명, 포로 309명, 전차 7대, 소총 2,327정을 노

획하는 혁혁한 전과에 아군은 29명만 전사, 비교적 근소한 희생으로 압승을 거두었다. 영천 작전을 직접 진두지휘한 제8사단장(이성기 장군)의 탁월한 작전지휘능력과 영천 대첩에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용전분투한 구국장병들의 무훈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다함께 도열해 묵념을 올리고 6·25 참전언론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니 바로 이날의 하이라이트. 지용우 6·25 참전언론인회 간사(본회 논설고문·전 경향신문논설실장)의 낭랑한 목소리가 호국원 일대에 메아리쳤다.

“6·25 남침전쟁이 남긴 엄청난 희생이 모두 북한 공산집단의 오판과 만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사회 각 분야에서 반국가적 반민족적 작태를 서슴지 않는 종북 좌익 세력과 일부 젊은 세대들의 왜곡된 안보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가슴에 와 닿는 우렁찬 목소리에 박수 소리가 천지를 진동케했다.

세계유일 편입학 사관학교

영천호국원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든 일행은 차로 30분 남짓 지근거리에 자리 잡은 육군3사관학교(현재 창설 45주년)로 이동했다. 공무출장 중인 학교장 원홍규 소장을 대신해 서영광 대령(육군3사관학교 기획처장)이 역사관 현관에서 반갑게 거수경례를 한다. 역사관에 들어서자마자 홍원기 회장과 박기병 회장은 이 학교 방문을 기념해 마련한 ‘護國干城精銳將校養成’이라 쓴 휘호를 증정했다.

역사관에선 안내사병과 학교신문(충성대신문) 우지희회자가 소상히 학교현황을 소개했다. 1968년 1. 21청와대 기습, 미 푸에블로호 납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등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사항일 때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장교의 육성이 시급해 설립됐다는 이 학교의 교훈은 ‘조국(祖

7면으로 이어집니다.



육군 3사관학교에 방문기념 휘호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흥원기 대한언론인회장, 서영광 3사관 학교기획처장,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장)

6면에서 이어집니다.

國) ‘명예(名譽)’ ‘충용(忠勇)’이다.(초대 학교장 정봉욱 소장 재임 시 제정)

그동안 육군 장교의 50%이상을 배출해 오던 이 학교는 이제 사관생도 과정만을 전담하는 세계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의 장교 양성 기관으로 졸업과 동시에 두 개의 학사(공·문·이학사, 군사학사)학위가 수여된다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서영광 대령은 버스에 올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캠퍼스 안 시설들을 자랑하는데 동양 최대 규모의 잔디 밭 연병장(면적 102,810평방미터)을 보는 순간 모두들 경탄 또 경탄. 10개의 축구경기를 동시에 개최 할 수 있다는 이 연병장에서 훈련받고 배출된 정예장교들이야말로 믿음직한 호국의 간성이자 우리국군의 무한한 가능성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격렬했던 다부동전투

이날 일정 중 마지막 코스인 다부동 전적기념관. 허위범 관장의 열정적인 해설이 지금도 귀에 켜들린다. 10여분 짜리 동영상과 보고 구국용사충혼비에 헌화 묵념. 미리 와 있던 고엽제전우회 부산지부 부산진구지회(회장 이동철) 회원 86명이 우리 일행이 입은 조끼와 현수막을 보고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이 곳 행사에선 한영섭 원로회우(6·25 중군기자회 회장)도 분향을 같이 했다.

다부동전투는 알려진 대로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국군 1사단, 미군 27연대가 낙동강을 넘은 북한군과 다부동 일대에서 맞싸워 50여일간 아군 1만여명 등 2만 7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6·25전쟁 중 중부전선의 백마고지 전투와 더불어 가장 치열한 격전이었다.

다부동전투는 안강전투와 함께 대구를 사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오늘에까지 있게 한 혈투에 혈투를 거듭한 대전투였으며, 9월 16일 개시된 반격작전의 일환으로 다부동 북서쪽 11km 지점의 천생산을 탈환한 후 잔적을 소탕한 9월 24일에야 종결되었으며 그 어느 전투보다 치열하고 참혹했던 격전으로 전사에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이 전투에서 우리 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6·25전쟁 영웅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백선엽(1사단장)장군이 “만일 사단장이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쏘고 너희들이 명령 없이 물러서면 내가 너희들을 쏘겠다”며 병사들을 독려해 역습을 감행한지 30분 만에 목표지인 유학산을 재점령하는 전과를



흥원기 회장의 분향.



박기병 회장의 분향.



한영섭 중군기자회장의 분향.

올렸다. 이 전투는 8월 13일부터 12일 동안에 걸쳐 정상 주인이 15번이나 바뀌는 격전이었다. 또한 최초로 국군과 미군이 연합하여 작전을 실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됨에 따라 연합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부동전적기념관 허관장의 현장감 넘치는 해설은 들을수록 열정이 넘친다.

이번 낙동강유역 전적지 답사행사에서는 특히 60여 년 전 이 일대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문준철 오향옹 지용우 원로회우 등 참전 노병들의 감회가 남달랐으리라 짐작된다. 시간관계로 안강, 기계 전적지는 답사코스에서 빠져 있었지만 6·25전쟁사중 가장 격렬했던 전투로 길이 기억될 영천대첩과 다부동전투, 그 역사의 현장에서 먼저 산화한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그 날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작으나마 일익을 담당할 것은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과였다. [7]

글 : 정운종 상임이사
사진 : 이철영 편집위원



각연사를 찾은 프레스클럽 회원들이 해설을 듣고있다.

절경-유적 찾아 즐거운 하루

프레스클럽 화양구곡등 문화탐방

프레스 클럽 회원 100여명이 지난 6월 13일 괴산군 일원으로 문화탐방 길에 나섰다. 대한언론인회 회원들도 다수 동참한 이번 문화탐방은 빼어난 산자수명으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구곡에서 천혜의 절경인 자연과 문화유적에 심취된 채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먼저 도착한 곳은 각연사(覺淵寺). 보배산(709m), 칠보산(778m), 덕가산(858m)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분지에 자리 잡은 각연사는 신라 법흥왕 때(515년) 유일화상이 창건했고 현재 범주사의 말사로 되어있다. 깨달을 覺 자에 연못 淵자를 쓴 연유로 보아 이에 마땅한 전설이 없을 리 없다. 창건 설화에 따르면 유일이 절을 짓고자 지금의 칠성면 쌍곡리 사동(절골)근처에 자리를 잡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까마귀 떼(또는 까치)가 날아들어 자주 대패 밥과 나무 부스러기를 물고 어디론가 날아가더라는 것이다. 기이하게 여겨 까마귀들을 따라가 보니 현재의 覺淵寺 자리 연못에 대패 밥등이 떨어져 있어 연못 속을 들여다보니 연못 안에 석불이 하나 있고 그로부터 광채가 퍼져 나왔다. 이에 유일이 깨달은바가 있어 연못을 메우고 그 자리에 절을 세우니 이 절이 각연사라는 이야기이다.

산막이 옛길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거의 사재를 털다 시피 해 마련한 산책로다.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막이 마을까지, 흔적으로 남아 있던 10리 옛길을 복원한 길이 바로 산막이 옛길이다. 1957년에 우리 기술로 완공된 괴산댐 호수를 끼고 산막이 옛길이 나 있어서 산과 물, 숲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움은 괴산의 자랑이라 한다. 산막이 옛길은 3가지로 즐길 수 있는데, 첫째는 등산으로 천장봉과 삼성봉(550m)에 이르는 약 3시간 산행 코스가 있고, 두 번째는 호수를 끼고 걷는 약 1시간 반 정도의 트레킹 코스를 즐길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유람선을 타고 차돌바위 선착장에서 산막이 선

착장까지 갈 수 있다.

시간관계로 쌍계계곡은 해설사의 설명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엔 호룡소, 소금강, 병암(떡바위), 문수암, 쌍벽, 용소, 쌍곡폭포, 선녀탕 잠암(마당바위)라는 아홉 개 마디가 서로 벗 삼아 사계절을 품고 있다. 조선시대 퇴계 이황, 송강 정철 등 수많은 유학자와 문인들이 이곳의 산수경치를 사랑하며 소요하던 곳으로 노송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숲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역시 화양구곡은 소문대로 절경이다. 허영란 해설사의 낭랑한 설명이 이어지고 현지 해설사도 열변을 토하지만 더위 탓인지 5곡 정도에서 모두들 원점 회귀다. 그래도 만동묘와 송시열(號 우암) 사당을 보고 온 회원들은 큰 소득이었을 것이다.

화양구곡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의 조화가 이름난 곳으로, 조선 후기 대학자인 우암이 머물면서 중국의 주자가 무이산 계곡에 무이계곡을 정한 것을 본 따 화양계곡의 아홉 명소들을 골라 화양구곡(경천벽, 운영담, 읍궁암, 금사담, 첨성대,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천)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고 한다. 1975년 속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었으며 청주에서 동쪽으로 3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귀로에 들른 한운사 기념관은 다음날 개관준비로 분주했다. 괴산군은 사업비 9억원을 들여 한국방송계에 큰 획을 그은 극작가 고한운사(1923~2009)선생의 생가 터인 청안면 읍내로 45-6(읍내리 473) 일대 239.59㎡에 지상 2층 규모로 한운사 기념관을 건립했다. 이곳 2층 전시실에는 선생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사진, 육필원고, 대본, 어록, 생전에 쓰던 책상과 펜, 안경 등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8]

글·사진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태우차장

‘국정원 댓글’ 논란속 ‘종북과 전쟁’ 실종

국가안보 맨앞에 선 국가정보원의 원세훈 전 원장이 인터넷 댓글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시민단체·노조 등이 모두 ‘종북좌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들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야권 대선 후보 또는 야당을 비방·반대하는 댓글 73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수십만 건 생산되는 댓글

우리나라 웹 사이트에 오르는 댓글은 하루에 수십만 건. 선거철이면 더 하다. 포털, 언론사,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트도 댓글 성지다. 한겨레는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지만 또 다른 신문들은 하루 1건 정도 댓글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주었을까, 선거법 적용에 의아해했다. 한겨레는 6월18일 ‘국기문란 비호하며 국정원 개혁이라니’라는 사실에서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은 국정원을 ‘유능하면서도 탈정치적인 선진 정보기관’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일깨워준 사건이다.

새누리당 태도를 보면 더욱 놀랍다. ‘종북 세력의 활동에 맞서기 위한 사이버 공간의 정당한 활동’ 등 ‘원세훈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15일 사실 ‘국정원의 임무가 정권안보인가’에서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한다(2012년 2월)는 등의 발언이 어떻게 순수한 대공·안보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댓글로 선거결과 못바뀔”

야당과 좌파매체가 극렬한 공세를 취한데 반해 조선과 동아는 법정에서 가려야 할 일이라는 논지를 펼쳤다. 조선은 15일 ‘국정원이 대북 업무에서 이탈하는 근본 원인 찾아라’ 사실에서 “민주당은 이 사건을 ‘거대한 선거 개입 음모’로 보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당이라면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바꾸겠다는 정치 공작을 했겠는가.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본업은 북한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북한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에 무슨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권 치적 홍보에 앞장서고 정치색 짙은 댓글 작업에 나선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걱정하는 국정원의 가장 큰 구멍은 대북 업무에 난 구멍이다”라고 지적했다. 동아도 15일 ‘법정에서 가려야 할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혐의’란 사실에서 원 씨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종북 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종북 좌파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

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언급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상대해야 할 종북 좌파는 북한과 연계해 남한의 국가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세력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씨는 국정원의 심리전단 사이버 팀원을 70여 명으로 확대하고 수백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원 씨가 거론한 ‘종북좌파’의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유도했을 소지가 크다.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넘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다.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정치 및 선거에 관여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대부분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이슈들이다. 개중에는 북한 대남기 구 및 이들의 지시를 받는 국내 세력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야 하는 국정원 업무의 한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도 있어서 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썼다.

인터넷 확산은 1대9대90라는 제이콥 닐슨의 법칙이 있다. 북한의 요원 1명이 선동하면 9명이 이를 퍼 나르고 90명이 본다는 거다. 폭력적 체제전복이 아니더라도 국가를 쏙먹는 인터넷을 ‘종북의 해방구’라고 한다. 검찰은 사이버 폭력에 둔감했다. 북한의 금융전산망 해킹이 금융 체제전

좌파매체 “국기문란행위” 공세 우파지는 “법정서 가려야” 신중

대선과 관련된 글을 올린 직원은 70여 명 중 9명, 올린 글도 87일 동안 73건, 전체의 4.1%다. 선거 개입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대북 심리전마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심리전의 전장은 현실과 사이버공간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댓글 달기는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또 “수사팀이 국정원이 국내

북 기도가 아니면 뭔가?

신문들은 웹에 댓글을 다는, 허약해진 국정원의 대공 기능에 근본적 성찰이 없었다. 김대중 정권은 국정원의 수백 명을 대량 해고해 ‘휴민트’가 사라졌다. 남한의 북한 휴민트를 북한에 제보하여 대거 숙청되었다고도 한다.

행정공무원 원세훈을 이명박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장에 앉힌 것도 실책이었다. 종북세력 수사라는 정공법

정운종 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수상

정운종 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전 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지난 6월 12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와 청학해양환경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1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언론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후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김은구 한기호 상담역, 박기병 이사(6·25 참전언론인회 회장), 지용우 논설고문, 문명호주필 성낙오 편집위원장, 이상호 사이버위원장등 본회 간부진이 다수 참석



정운종이사(오른쪽 세번째)가 축하를 받고있다.

해 수상을 축하했다.

정운종 상임이사는 사단법인 대한언론인연합회 회장, 종북협회 산악회 고문직 등을 맡아 오면서 몸소 국토대청소운동을 벌이는 등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K]

에 역부족이었다. 지금 인터넷에는 ‘국정원은 검찰의 종북세력을 수사하라’는 내용이 떠있다. 고위직을 약속받았는지 야당과 연계돼 정보를 유출한 구멍이 드러났다.

동아는 20일 사실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의 커넥션도 낱알이 밝혀야’에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 씨가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국정원 직원을 미행한 사실을 자세히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미행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집을 알아내 민주당에 알렸고, 그날 밤 민주당 관계자들이 몰려가 김 씨를 사흘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퇴직한 김 씨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또 국정원 현직 정모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거주지, 출근 정보 등을 빼내 전직 김 씨의 미행을 도왔고, 파면이 되자 ‘원장 지시·강조 말씀’을 빼껴 유출함으로써 국정원직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정치 개입뿐 아니라 민주당의 탈법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국기와 정치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취임사 추적보도 없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2011년 8월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적 가치의 우수성이 증명된 지 오래임에도 아직도 북한에 대한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종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년도 안 지난 종북과의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신문들은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아시아투데이만이 17일 사실 ‘국정원의 종북 비판 댓글이 왜 죄가 되나’에서 “국정원이 북한과 종북 세력을 비판하고 척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법 위반이 두려워 종북을 비판하지 못한다면 국정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러한 국정원을 해집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과 같다. 국정원은 검찰수사나 야당의 공격에 아랑곳 하지 말고 종북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이 할 일이다. 한국의 전 안보수장은 국정원의 활동방법과 업무기밀이 새고 있는데도 야당과 검찰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질 수 있겠는가.” 6월20일 국회 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 후 밝힌 NLL포기 발언처럼 노무현이란 대통령도 주적이 누군지 모르고 설친 종북의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다른가? 국가 안보는 지고의 가치다. [K]

KBS 파노라마
‘...끝나지 않은 전쟁’

秀作불구 역사인식 오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6·25 63주년이기도 하다.

당연히 각 방송은 관련 뉴스와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느라고 바빴다. 와중에 여전히 뉴스는 쏟아져 시청자들을 어지럽게까지 했다.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을 북에 빼앗기다시피 북송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고 본격적인 원전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기도 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에 대한 특별수사가 검찰에서 이뤄져 결과가 나왔으나 결과는 오히려 정쟁만 확산시키고 있고 우리의 수많은 대북 전문가들까지도 헛갈리게 하는 북한의 대화제의와 대미 대화제의 등은 여전히 그 속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이 것 또한 북한의 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런 빅뉴스가 연일 터져 나오니 방송은 이를 뒤쫓기에 바빠 중계방송 하듯 뉴스를 내보낸 한 달이라고 생각한다.

제작의도·작품성 뛰어나

방송뉴스는 이것으로 돌아본 것으로 하고 지난 6월 21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 6·25특집 성격의 KBS 파노라마 ‘정전 60년 다큐 콘서트 -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시청 소감을 편다.

제작자는 이 음악 다큐는 “검은 포화와 핏빛 절규가 뒤덮인 땅,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과 그분들에게 바치는 음악의 찢김굿, 음악과 다큐가 만나는 신개념 다큐 콘서트”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수십 년 세월 속에 기억도 희미해진 한국전쟁, 그러나 전쟁을 겪은 사람과 그 현장에 남아 있는 상흔이 아직도 선연한 것은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제작자는 상흔이 남은 현장에서의 증언과 음악의 찢김굿으로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찾고자 한다. 이 점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은 제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제작 의도도 높이 사줘야 하고 작품으로서도 나무랄 데 없이 완성도가 눈에 띄일 만큼 음악, 편집에서 뛰어났다고 평가하고 싶다.

제작자 스스로 밝혔듯이 이 작업을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연주자들이 출연하고 있다. 리처드 용재 오닐이 비올라를, 임동혁과 박종훈이 피아노를, 양성원이 첼로를, 신지아가 바이올린을, 김수연이 소프라노를 그리고 가이나 콰르텟과 조이 오브 스트링스가 현악 합주를 맡아 전쟁의 상흔을 찢어주었고 편집은 음악이 찢김굿으로 역할하기에 완벽한 편집으로 증언과 상흔을 감싸주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남로당 조직을 ‘무장대’로

물론 아직도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전쟁의 상흔에 아파하는 증언자의 치유와 화해, 용서를 통한 전쟁의 종식을 다

같이 추구하면서도 그들만이 피해자인 것으로 인식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민족 분열과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용서와 화해가 자칫 더 큰 상처와 분열의 심화를 가져올까 걱정되는 점이다.

우선 내레이션을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들을 찾아보자. 먼저 제주 4·3사건에 대한 증언.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가량인 3만 여명이 사망하고 특히 여성 2,985명, 어린이 814명, 61세 이상 노인 약 860명이 숨진 4·3의 피해자를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고 치유할 수도 없는 것은 분명하다.(이상 내용은 자막으

방송시평



오건환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파리총국장
-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곡으로까지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내레이션을 바탕으로 갖 시집은 새색시가 26살 청춘인 남편이 눈앞에서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동네 앞 밭 기슭에서 총살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아픔을 63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할머니는 지금도 남편이 왜 죽어야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증언을 하니 시청자는 4·3에 대한 인식

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빨치산 활동에 면죄부 준 셈

한국전쟁 도중은 물론 그 이후 가장 격렬한 무장 투쟁을 계속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리산 빨치산 토벌의 희생자 편에서는 진실의 왜

제주4·3 원인-배후 제대로 안밝혀 지리산 빨치산을 “항일투쟁서 시작”

로 표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말로 풀어나간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는 1947년 4월 3일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발포로 시작된 4·3사건은 좌·우익의 대결과 무장대와 토벌대의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해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일본군이 숨겨놓은 소총과 죽창, 곤봉으로 무장, 경찰관서를 습격할 계획을 마련하는가 하면 각 마을 세포조직까지 조직한 남로당에 대해서 단순히 ‘무장대’란 몰가치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잘못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이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4·3사건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등에 대한 장황한 설명보다도 한 마디로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발포로 시작된 4·3사건은”이란 말로 못 박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가져오게 했다고 본다.

더구나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남파된 남로당원들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곳곳에서 밝혀진 4·3 사건 주모자들이 있음에도 몰가치적인 ‘무장대’라고 표현한 것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의도적 왜

곡이 더욱 두드러진다.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3악장과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가운데 22살의 꽃다운 나이로 남편 따라, 오직 남편을 돕기 위해 입산했다 1년 만에 부상을 당하고 다리를 절단한 여인이 빨치산의 부모란 이유로 학살당한 부모를 기억해야 하는 슬픔을 지니고 살아온 일생을 증언한다.

이런 가운데 내레이션은 “누군가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누군가는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총을 겨누고 죽고 죽여야 했다. 모두가 곡절 있는 슬픔이고 모두가 원통한 죽음이다. 그 넋을 기리기 위해 음악가는 이 연주를 지리산 레퀴엠이라고 이름하여 연주한다”고 애잔하게 이어진다.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음악과 분위기가 충분히 상처를 찢어주고 전쟁을 끝낼 수 있을만한 분위기다. 그러나 지리산 빨치산 얘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일제 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에서 시작된 지리산 빨치산 활동이 한국전쟁에서는 남로당과 낙오된 인민군과 국군의 대립으로...”

지리산 빨치산은 제주 4·3사건의 주모자와 여순반란사건의 주모자인 이상현 등이 평양까지 가서 지원을 받아 치른 게릴라전인 것이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은 양민의 억울한 사연인양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항일 무장투쟁에서 시작된 지리산 빨치산 활동이...”라면서 시청자들에게 지리산 빨치산 활동의 정당성을 주입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남로당과 낙오된 인민군과 국군의 대립으로...”라면서 빨치산을 국군과 대등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빨치산 활동에 정당성과 역사성을 부여하는 면죄부를 주게 됐다.

피해 증언자들도 거의 아군에 의한 사람들로 짠 것도 부지불식간 시청자들에게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양민을 학살하고 전쟁을 마구잡이로 이끌어간 것으로 인식시킬 수도 있다.

군에 입대해 적과 싸우는 가운데 어머니가 미군의 기총소사로 팔에 관통상을 입고 그날로 숨진 금강산 열차 기관사 박장길씨도, 간첩으로 몰려 5년간의 수감 뒤 석방 후에도 계속된 사회적 압박에 불법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홍윤희씨도, 빨치산의 딸로 태어나 그 핏박 분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 쳤던 소설가 정지이씨도 모두가 대한민국이, 국가가 가해자 역할을 한 증인들이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대한민국이 가해자일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증언자는 8명이고 소설가 이호철씨 등 가치 중립적인 사람은 3명, 그리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딸까지 네 명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당성 흠집 우려

이런 점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은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슬픔에서 벗어나 화해와 용서를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제작 의도와 달리 엉뚱하게 국가의 정당성에 흠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가치전도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6·25 전쟁은 남한의 북침으로 일어났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고교생이 69%나 된다는 요즘 사회 분위기에서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제작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픈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동정과 그릇된 이해에 몰입하거나 앞서 지적한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정한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방송제작자는 냉철한 역사인식과 사실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 시청자에게 그릇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사실을 주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머리에 두고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방송제작자의 가치판단은 작품의 주제 설정과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충분하다.

과잉 의욕과 어설픈 신념이나 가치의 주입으로 프로그램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겠다.

건강포럼 7월 13일(토) 엽니다. 8월에 휴강

(사)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와 한국성과학연구소(소장 이윤수)가 공동으로 열고 있는 ‘토요건강포럼’-이달 13일에 열리는 ‘건강포럼’에서는 ‘마법의 호르몬’에 대해 이윤

수 박사가 강의한다. 장소는 지하철을지로입구역 근처에 있는 ‘이윤수·조성완비뇨기과’ 홀이다. 한편 ‘토요건강포럼’은 폭염기인 8월에는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휴강한다.

“봉사하는 삶에서 새로운 인생

분당서울대병원 1층 외래 장애인 창구에 가면 밝은 미소의 멋지고 친절하 노신사를 만날 수 있다. 노인 환자들을 돕는 자원 봉사자 이종전 회우다.

병원행정에 의견반영

올해 78세인 이 회우는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씩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외래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시설과 의료진을 안내하고 진료의뢰서를 써주는 등 맞춤 서비스를 한다. 2달에 한 번 정도는 병원 당국자들과 함께하는 회의에도 참석하는 데 환자들을 만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병원 행정에 반영될 때는 정말 기쁘다고 한다. 나이 들어 하는 이 일이 정말 자랑스럽고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때는 가슴 뿌듯하고 최고의 보람이라는 이 회우에게 물었다.

- 어떤 인연으로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하시게 됐나요?

“1978년 아내가 원남동 서울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받았어요. 끔찍했지요. 어느 날, 뼈와 가죽만 남은 아내가 하도 고통스러워서 무조건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곧 죽을 것만 같은 환자를 의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응급실 바닥에 놔두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거칠게 항의 했어요.

그런 연유로 병원장을 만나게 됐는데 병원의 사정과 의사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있을 테니 직접 응급실 체험을 해 보라고 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79년부터 원남동 서울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 했어요. 아내의 건강을 위해 서울을 벗어나 공기 좋은 경기도 광주의 산속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2003년 6월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은 환자편의향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34년이니 됐네요. 아내의 병수발을 하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동안은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아내의 병세도 많이 호전돼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않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따랐어요. 다만 흥삼은 많이 복용 했지요”

대학4년동안 학회장 지내

- 지켜보신 일 들 가운데 잊혀 지지 않는 사연은요?

“귀한 인상의 한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그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시선이 마주치면 꼭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곤 했어요. 1년이 지난 뒤에는 침대에 누운 채 이동하면서 시선이 마주치면 작은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곤 했지요. 그리고 1년 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법조기자를 13년 해서 아는 법조인이 많아요. 어느 날은 파킨슨병으로 입원했다는 전 서울지검장을 만났어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60〉

회우초대석

李鍾全

인터뷰 : 글 = 호천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포즈를 취한 이종전 회우.

즐겁고 기뻐했던 기자 생활 ... 법조 출입 13년 일 부인 간병계기 34년간 대학병원서 자원봉사

요. 그 분 말씀이 참 귀한 일 한다고 격려하면서 ‘나도 기운이 있으면 그런 일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분은 지금 의식불명인 채로 노인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 봉사활동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은 일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으로 고생하는 언론계와 법조계 등의 선배와 동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인생 그리고 건강과 병,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하곤 합니다.”

서울 출생인 이 회우는 성남중학교 4학년 때 맞았던 6·25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용산전화국장이던 선친께서 6·25 이틀 전에 광주(光州)전신전화건설국장으로 전근되시는 바람에 중학교 6학년이던 형과 서울에 머물다가 형제가 북한군에게 잡혀 부평형무소에 갇혔다. 두려움의 1개월 여 뒤에 풀려나 서대문 삼촌댁에서 기숙했던 일, 서울 수복과 함께 선친께서 몰고 오신 스리쿼터를 타고 광주로 가던 일, 특히 순창지역을 지나던 중 공비의 습격을 받고 논두렁에 숨었던 일 등이 어제 일 같다. 1954년 성균관대 국문과에 입학했는데 박종화, 조운제, 손우성, 오화섭 교수 등의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학 4년 동안 줄곧 학회장을 지냈다.

언론계40년 민원사회부 기자

-어떻게 해서 기자가 되셨어요?

“대학 다닐 때도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에 취미가 남달랐지요. 졸업하던 해인 1958년에 대학생 신분으로 세계통신기자 시험에 합격해서 사건기자로 사회부 기자로 언론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언론계 생활 40여년은 그냥 신나고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취재하는 게 마냥 좋았고 기사쓰기는 재미있었고 신문에 인쇄된 내 기사를 보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 지금도 생각나는 선배나 동료기자들이 있지요?

“물론입니다. 세계통신에 입사할 때 편집국장이 김현재 선배였는데 사건기자의 대부라고 불리었지요. 김현재 국장은 여수·순천 사건 때 반란군의 진중으로 들어가 대장과 인터뷰한 기개가 대단한 기자였고 부장과 국장이 된 뒤에도 특히 후배들을 잘 챙겨서 야간 취재를 하던 기자들이 수시로 김 국장 집으로 쳐들어가 야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주망태가 됐던 일이 전설처럼 전해지기도 하지요.”

이런 사연과 분위기는 이 회우의 유전인자를 가장 많이 물려받았다고 자인

하는 이회우의 1남2녀 중 막내딸인 이윤우 경민대학 디지털영상과 초빙교수가 전해온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특히 밤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시면 늘 사람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셔서 술 한 잔을 더하셨는데 어린 저의 눈에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면 술에 취해 너부러져 있는 아저씨들이 있어 늘 저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시끄럽게 떠드는 아저씨들 때문에 잠을 설치 짜증도 났지만 지나고 보니 사람 좋아하고 같은 기자식구들을 챙기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회우는 세계통신을 시작으로 자유신문을 거쳐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에서 민원 사회부기자로 이름을 떨친다. 특히 법조출입 13년이란 대단한 경력을 쌓았다.

간접관련 오보·특종 기억에 남아

-특종도 많이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기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오보·특종이죠. 법조 출입 기자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을 찾았어요”

· 전 경향신문 수석 논설위원
· 전 동명정보대 객원교수
· (현)분당서울대병원 환자편의 향상위원장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사진 = 분당서울대병원 홍보팀



노인환자들을 친절히 안내하는 이종전 회우. (오른쪽)

화 수두룩 사자 활동

법원 영장계에 숨어들어가 캐비닛을 열고 급히 기록을 훑쳐봤어요. 내무장관의 동생이 북한 간첩으로 내려와 형을 접선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급히 메모한 내용을 기사화 했지요. 이해복 사회부 차장이 송고를 받아 처리했구요. 북한 간첩이 남파돼 고위직 인사를 접선했다는 사실이지만 내무장관의 동생이 아니라 법무차관 김영천의 동생이었으며 김 차관은 자수를 권했으나 불응하자 당국에 고발한 사건이었습니

다. 오보·특종이었지요. 난리가 났고 치안국 분실로 연행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

다. 침침하고 길었던 복도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무거워진답니다. 간첩으로 넘어온 처남을 만나고 신고하지 않아 구속되고 재판을 받은 오화섭 교수사건도 기억에 남습니

다. 오 교수는 저의 성균관대학시절 은사였으니까요. 다음은 조동오 선배이야기인데 경찰국장인 매부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다는 기사를 제가 특종하고 송고했어요. 조 선배한테 말했더니 얼굴이 하얘지는가 싶더니 바로 전화를 걸어 들고 그 기사를 송고하는 것이었어요. 기자정신의 산 표본을 보았고 콧잔등이 시큰했어요.”

-1980년에 해직되었지요?

“네 경향신문 수석 논설위원이었을

때입니다. 같이 일하던 서동구 편집국장이 구속됐는데 주변의 만류를 무시하고 특별면회를 했어요. 범조통이었으니까요. 그 일로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고 ‘군부는 경제문제에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을 써달라는 종용을 받았는데 거부 했고 결국 해직통보를 받았지요. 그 요구를 받아들인 다른 신문사 논설위원은 나중에 장관으로 발탁되었지요.”

그 후 이 회우는 1982년에 언론연구원 이사,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동명정보대 객원 교수 등으로 활동을 계속했다.

아내위한 삶, 이웃 위한 봉사 다짐

-부인 이해옥 여사와는 연애 결혼하셨나요?

“경향신문 어임영 선배의 소개로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박혜옥씨를 만났지요. 처음 데이트를 약속했는데 데스크가 송요찬 계엄사령관 집을 스케치 하라는 거예요. 사정을 말하고 2~3시간 뒤에 달려갔는데 박양이 다방에서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많이 고마웠어요. 미인이었어요. 특히 종아리가 예뻐더라구요. 얼마 뒤에 생존하셨던 할머니께서 손자며느리 감을 꼭 보셔야 된다고 고집하셔서 몰래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극구 반대하셨어요. 가냘픈 외모를 가리켜서 저 몸 가지고 어디 애를 낳겠느냐구요. 그 때는 이미 가냘픈 외모와 예쁜 종아리에 마음이 굳어져 있었는걸요. 암으로 고생을 했지만 애들을 3명이나 낳았고 모두 잘 키웠지요. 아들과 사위 둘, 그리고 막내딸까지 대학 교수이고 이제 손녀·손자들이 모두 6명 이랍니다. 아이들이 성공한 것은 모두 아내의 공이죠. 우리시대 기자들이 대개 그랬지만 자녀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집에 일찍 올 때면 친구나 후배들을 달고 와서 술상 보라고 하기 일쑤였거든요. 아내가 암 투병을 하는 동안 처절하게 자신을 되돌아 봤어요. 나 자신 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요”

- 멘토라고 꼽을 만한 분이 계신가요?

“제 인생의 멘토는 이용훈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사는 인혁당 사건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검사였는데 법률가로서의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며 사표를 낸 소신 있는 검사였죠. 기자와 검사로 만났지만 통했고, 후견인으로 많은 조언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제가 지은 <법이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 선다>는 책의 추천의 글도 써 주셨고...”

-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데 병원에서 봉사하시면서 노인 환자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노인 질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노인 요양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가족 전통적인 의식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는 합니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⑮

심장병-암 함께 예방하는 법

미국심장협회가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7가지 간단한 생활수칙(Life's Simple 7)이 암 발생위험도 크게 줄여준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술지 순환(循環·Circulation)은 미국 도스웨스턴 페인버그 의과대학

라우라 라스무센 토빅(Laura Rasmussen-Torvik) 교수가 13,25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기추적연구조사인 ‘지역사회 죽상동맥경화증 위험연구’(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Studies)에서 20년간(1987~2006년) 누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다고 최근 보도했다.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기 위한 7가지 간단한 생활수칙은 아래와 같다.

1. 활동적으로 살아라.-최소한 1주일에 150분간 운동을 한다.
2.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라.-콜레스테롤의 수준을 200mg/dl 이하로 유지한다.
3. 건강한 식생활을 하라.- 과일, 채소에 생선과 같은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을 즐겨 먹되 염분과 설탕 섭취량을 줄이고 트랜스지방(trans fat·튀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음)과 포화지방을 제한한다.
4. 혈압을 잘 관리하라.-혈압은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120/80 이하로 낮춘다.

5. 체중을 잘 관리하라.-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를 25이하로 유지한다. BMI는 비만을 판단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이다. 18.5~22.9가 정상

이고 25이상은 비만에 속한다.

6. 혈당을 낮추어라.-아침식전 혈당을 100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탄산음료, 과자 등 당분이 많이 들어 있는 후식 등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

7. 금연하라.-흡연은 백해무익한 일로 금물이다.

위의 7가지 수칙 중 4가지를 지킨 사람의 암 발생위험은 33%, 6-7개 수칙을 지킨 사람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칙을 많이 지킬수록 암 발생위험도가 그만큼 낮았다. 7가지 수칙 중 금연은 대단히 중요하다.

토빅 교수는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수칙이 어떤 이유로 암 발생위험을 줄이는데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원인인 두 질병의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수칙 7가지를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4]

서도 그렇고 노인 환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문시설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 상을 당했어요.

두 달만 더 사셨으면 만 100세가 되시는데 혼자 아파트에서 간병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요양시설은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세태지요.

저 자신은 1994년에 이미 장기기증 등록을 했구요. 요양시설의 기능적인 장점을 높이 보고 있어요.”

-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체장염 선고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 후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철저히 해서 일상생활과 봉사활동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술, 담배는 물론이고 고기도 먹지 않구요. 저녁에 탄천 수영장에서 아쿠아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녁 11시 30분쯤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법이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 선다

막내 따님인 이윤우 교수는 아버지를 ‘사색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늘 책을 가까이 하십니다.’ 라고 소개했다. 사실 인터뷰 약속을 잡으려고 첫 전화

를 드렸을 때 무엇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송호근 교수의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읽을 만하네요.”라고 했고 인터뷰를 위해 광주 신현리 자택을 찾았을 때는 김영란·김두식 공저의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란 책이 탁자위에 놓여있었다. 근처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었다. 손녀·손자들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내 보물들이지요.” 라는 이 회우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시냐고 물었다.

“손녀·손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을 사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보람입니다. 보고 싶은 책을 말하면 그건 꼭 사줍니다. 그런데 큰 손녀가 대학가면서는 부탁하는 외국 원서가 꽤 비쌀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약속은 꼭 지킵니다.”

기자생활이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웠으며 34년째 병원 자원봉사가 기쁘다는 이 회우는 <법이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 선다>는 저서의 제목처럼, 바른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책 선물로 후손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이 무엇보다 ‘귀함’을 실천 하고 있다. [4]

나라 특성 못 살린 순천만 정원 박람회

자연이 빛은 정원은 열린 공간이지만 인간이 조성한 정원은 갇힌 공간이다. 정원(庭園)의 원(園)자도 폐쇄된 공간임을 의미한다. 인류는 왜 갇힌 공간인 정원을 만드는 것일까? 그 궁금증을 영국의 정원 역사가 톰 터너가 ‘정원의 역사’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우리의 몸을 위하여(for the body)라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야채를 기르는 키친가든이나 약용식물을 키우는 약용식물정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for activity) 조성한 식물원, 수목원 등이다. 세 번째가 신전의 정원이나 사찰 사원 등 정신세계를 위해서(for the spirit)다.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 한국의 정자문화도 정신의 향유가 아닌가 싶다. 자연환경이 척박한 서양의 정원은 예술성과 창의성에 중점을 둔 인공미가 짙고, 산수가 빼어난 동양의 정원은 ‘자연의 모방’이 특징이다.

“정원박람회야 꽃 축제야”

세계의 정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로 찾아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정원박람회인지, 꽃 축제인지 헷갈린다. 꽃을 이용한 다양한 조형물과 분재는 꽃 축제장이 아니라도 흔하게 본다. 흑두루미 미로정원, 갯지렁이 다니는 길 등 생태와 관련된 테마정원도 있지만 한방체험관, 승마체험장은 생뚱맞다. 한글이 새겨진 알록달록한 유리타일로 외벽을 꾸미고 내부에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14만여 점을 전시한 ‘꿈의 다리’는 이색적이다. 뽀로로 등 다양한 캐릭터로 꾸민 ‘어린이놀이 정원’과 스토리텔링의 나무이야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려 애쓴 흔적은 뚜렷하다.

111만2,000㎡의 넓은 들판에 참여정원, 테마정원 등 83개의 정원을 꾸며 놓았으나 정작 세계전통정원 11곳은 나라 별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네덜란드정원은 풍차 주변에 튤립을 심었으나 철이 지나 썩비어와 메리 골드로 바뀐다고 한다. 그 앞에 커다란 나막신 ‘클롭판’ 한 켤레를 배치해 놓은 게 고작이다.

오렌지나무대신 유자나무를 심었다는 스페인정원은 마주 보는 석조 미니 분수 사이로 물이 흐르는 단조로운 구조다. 알람브라궁전 물길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타레가의 영롱한 기타 선율(알람브라의 궁전)을 떠 올리기에 무리다. 잔디와 야생화로 꾸며 놓은 미국정원은 “함께 즐기면서도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원의 정신을 살렸다”는 안내원의 설명이 공허하게 들린다.

순천만의 가치 제대로 살려야

중국정원은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이야기를 표현한 커다란 조각만 눈에 들어올 뿐 중국정원 고유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없다. 일본정원은 미니여처만 돋보일 뿐 교토의 료안지(龍安寺) ‘가레산스이(枯山水)’처럼 여백의 미학을 담아내지 못했다. 한국정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프랑스정원은 대리석 2층 레

스토랑과 함께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바로크 시대 건축양식을 도입하여 정원을 만들었다”는 게 안내원의 설명이다. 기하학적인 디자인과 화려하고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베르사유 궁전 정원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한 곳으



글·사진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박람회장에 조성한 순천호수정원의 나선형 바람언덕.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이야기를 표현한 중국정원. 고유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없다.



네덜란드의 상징인 풍차만 돋보이는 네덜란드정원.

로 드넓은 갈대 군락과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순천만과 연계한 박람회장은 행사 후 버려지거나 철거할 시설이 아니다. 42만여 그루의 각종 수목은 날이 갈수록 무성한 숲을 이룰 것이다.

초반 흥행몰이 성공…경로우대 8,000원

각 나라 정원의 특색을 제대로 보완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게 순천만의 가치를 더욱 빛내는 일이다.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이란 주제로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개장 60일 만에 200만 명이 다녀가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400만 명 관람객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한 영상과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구역’이다. 워낙 박람회장이 넓어 동편 세계정원 구역엔 전기충전 버스가 순환 운행한다. 요금 2,000원에 4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데 탑승객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동문으로 들어서면 순천호수정원이 눈길을 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쟁스가 순천시의 풍경과 순천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 했다고 한다. 중심에는 순천 봉화산을 축조한 높이 16m의 봉화언덕이 섬처럼 떠 있다.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걸어 올라가는 둘레길이다. 호수에는 순천만 갈대로 엮은 배를 띄워 놓았다.

입장 할 때 안내지도를 챙기면 편리하다. 그늘이 없어 차양 모자와 선글라스, 소매 긴 얇은 겹옷은 필수다. 마음에 끌리는 11개국 나라별 정원을 둘러보거나 아이들과 동반했다면 갯지렁이 다니는 길, 흑두루미 미로정원, 어린이 놀이정원을 둘러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놀이를 즐기도록 배려하자. 한방체험관에서는 사상 체질 감별, 진맥 등 한방 진료를 받아볼 수 있으며 한방 가공품을 판매 한다.

생태계 보고 순천만 꼭 둘러보아

동천을 가로지르는 ‘꿈의 다리’를 지나면 한국정원구역이다. 창덕궁 후원과 담양 소쇄원 등을 재현해 놓은 한국정원과 늘푸른정원, 철쭉정원이 펼쳐진다. 200여 종의 자생 나무와 식물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나무도감원’은 QR 코드로 식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장 곳곳에 심어놓은 열아홉 그루의 ‘나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으로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나무도감원의 ‘근심 먹는 은행나무’는 두 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100년이 넘게 한자리에서 뿌리내리고 살던 은행나무 3그루를 옮겨 심었다. 바위정원에 심어진 ‘600살 할아버지 팽나무’는 제주도 암반 지역에서 살던 고목. 경남의 한 조경사업가가 영호남의 우정과 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며 기증했다.

‘5분전 은행나무’는 순천시 석현동 주택에서 자라던 것으로, 집주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베어내려던 것을 박람회 관계자가 5분 전에 도착해 가까스로 살려내 색다른 이름을 얻었다는 데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홍보대사인 ‘조수미의 튤립나무’는 단풍나무길에, ‘기성용의 느릅나무’는 순천만습지에, ‘장사익의 느티나무’는 야수의 장미정원에, ‘히딩크의 호두나무’는 네덜란드 정원에서 만날 수 있다.

인공으로 조성한 박람회장에 다소 실망했다면 순천만갯벌을 권하고 싶다. ‘꿈의 다리’ 부근에서 1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셔틀버스가 있다. 국내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22.6㎢의 갯벌, 54㎢의 갈대 군락지, 220여 종의 철새, 갯벌에서 살아가는 12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세월이 빚어 낸 자연의 경이로움에 흠뻑 빠져 몸과 마음이 절로 힐링 된다. [www.sunchonman.com]



NO.1 뉴스앱

2012년 뉴스앱 주간 이용률
한국광고주협회자료



※ 2012년 10월 18세이상 성인남녀 1만명 대상 조사



제주 해군기지 탄력 ... “서귀포는 공사중”

오늘날 제주섬의 절반인 산남쪽 서귀포에 처음 개발바람이 일기 시작한것은 섬전체를 홍콩, 싱가포르등과 차별화된, 보석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취지아래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범하면서부터였다.

그 5년후인 2007년 가을에는 노무현 당시대통령이 직접 내려와 신시가지동쪽의 굴밭 한복판에 혁신도시건설의 첫 삽을 뜨면서 지역개발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그런데 바로 이 혁신도시현장에서 불과 1킬로 서남쪽의 바닷가 강정마을의 주민총회가 마을의 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명분아래 해군기지유치를 결의한 것은 그보다 반년전인 4월26일의 일. 하지만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오늘 혁신도시는 착착 진행되어 연내완공을 눈앞에 둔 반면 도민여론조사까지 거친 강정해군기지는 집요한 반대시위에 걸려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정치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말았다.

지난해 대선득표에서 산북(제주시등)의 경우 박근혜 후보는 119,563표로 119,622표를 얻은 문재인 후보에게 59표 뒤졌으나 산남지역에서는 46,621표로 41,613표의 문후보에게 5,008표차로 역전했던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이는 곧 강정해군기지의 건설을 두고 극명하게 갈렸던 두후보중 하와이 못지않은 아름다운 군항으로 만들 것임을 공약했던 박근혜후보에 대한 서귀포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의사가 표로써 밝혀

졌던 것. 그래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강정마을주변의 표정은 많이 달라져가고 건설공사역시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가는, 그런 느낌이다.

아직도 마을에는 반대시위자들이 버티고 있고 도처에 ‘해군기지결사반대’나 ‘공사즉시중지’라 적힌 노랑깃



김춘빈

·본회 회우
·전 KBS전문위원

얼마전 시당국이 반대시위자들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천막2채를 경찰력을 동원한 가운데 강제 철거해 버린 것도 이 같은 상황변화와 무관치않을것이다. 현장에서는 오늘도 주로 바다 밑 준설과 방파제 및 부두건설을 위한 기초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서귀포 항만.

받은 펄럭이고 있으나 레미콘 차들이 줄지어 들락거리고 일반주민들의 내왕도 차츰 빈번해져간다.

머지않아 본격적인 항만건설에 접어들게 되리라는 소식도 들린다.

기대되는 '동북아의 보물섬'.

5년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의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긴 새이름을 얻게된 제주해군기지는 15만톤급 대형크루즈2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한 초대형부두와 군항,어항등의 건설로만 끝나는게 아니다. 2조가 넘는 총예산중 다목적항만건설에 약1조, 그 나머지는 주변 일대의 현대화사업에 투입, 이고장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을 계획이다.

풍요로운 건강생태도시건설을 비전으로 삼은 발전전략을 보면 크루즈를 통한 관광허브조성과 농수산물의 특화개발로 주민소득을 늘리고 주민의 정주환경개선과 함께 화합과 공존의 민·군커뮤니티형성으로 행복하고 살기좋은 미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 그 안에는 걷고싶은 쇼핑거리, 해녀등 다이버지원시설, 프리미엄 아울렛, 각종해양공원의 조성, 퇴역함을 활용한 해군박물관, 미래형첨단 농업단지의 육성, 빌딩형 양식어장, 그밖에 바다목장 또는 외해가두리 같은 대체어장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꿈같은 계획들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그동안의 반대시위 때문에 2014년 완공 예정이던 공사기한은 1년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라고 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약속한 하와이 못지않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늦어도 내후년 연말까지는 서귀포 강정항에 그 웅장한 모습을 선 보이게 될 것이다. [K]

‘巨人’ 발자취 다시 보다

後石천관우선생 묘소를 다녀와서

이병대(본회 부회장·전KBS 스포츠국장)



후석선생 묘소앞에서 (오른쪽부터 권도홍회우, 최정옥여사, 필자)

7월 9일(음력 6월2일)탄신 88주년을 앞둔 언론계의 거목 후석(後石)천관우(千寬宇)선생 묘소를 지난주 다녀왔다. 후석 선생의 천안공원 묘소는 별때마다 명당으로 느껴진다. 묘소의 앞은 막힌데가 없이 툇 터여있어 시야가 시원하고 좌우(左右)와 배후(背後)를 병풍처럼싼 산(山)세로 인해 참으로 아늑하고 따뜻하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덕리 산 22 소재 후석선생의 이번 묘소 참배는 후석선생의 사모님 최정옥(崔貞玉)여사의 연락으로 이뤄졌는데 권도홍 선배와 함께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천안으로 달려갔다. 후석 선생의 묘소 오른쪽에는 ‘언론인이며 역사학자이었던 천관우(1925-1991)여기 잠들다’는 묘비석이, 그리고 묘소 좌우 석벽에는 연분홍색과 노란색 장미다발이 꽂혀 있었고 봉분위와 앞의 널찍한 잔디밭은 잡풀하나없이 잘 손질되어 깔끔하고 싱그럽다.

향을 피우고 간단히 준비해 간 제수품을 진설(陳設)한 뒤 술을 따르고 재배(再拜)를 드리니 후석 선생의 옛일들이 어제처럼 되살아난다.

최여사께서는 후석께서 타계하신지 벌써 22주기가 됐다면서 정말 허무하다고 말씀 하신다. 후석선생에 비해 한살아래인 최여사는 87세라는 연세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억력이 대단하고 정정하여 옛일을 어제 일처럼 말씀 하신다. 최여사는 후석선생이 신념에 따라 한평생을 사신 언론인, 학자이셨고 다음 생애에도 만나고 싶은 훌륭한 분이시라며 눈시울을 붉히신다. 옆에 계신 권도홍선배는 “동아일보에서 힘들게

편집을 끝내고 편집국장이던 후석선생과 눈길을 마주칠때면 엄지손가락을 세워 무언(無言)의 칭찬을 해주시고 퇴근시간이 되면 술집에 불러 내 격려해 주시던 그때를 잊을수 없다”고 회고했다.

내가 48년 전인 1965년 2월 동아일보사 수습기자 7기생으로 입사할 당시 후석 천관우선생은 편집국장 이셨다. 우람한 체구에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압도했고 대범하나 치밀한 성격과 박학다식(博學多識)한 지식으로 존경을 받으셨다.

입사하고 얼마 후 후석 편집국장은

우리 수습기자들을 동아일보사 옆에 있던 중국집 ‘복취루’에 불러 놓고 청요리와 술로 크게 축하해 주었다. 이때 우리들에게 “기자 생활을 하지만 특정부문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전문가가 되는 게 좋겠다.”면서 공부할 것을 당부 하셨다.

카드가 없던 당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아일보사 옆 중국집 복취루는 가난한 우리 기자들이 외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마음 편한 단골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거의 매일 자장면을 배달 시켜 회사 책상에서 잡수신 후석

편집국장의 호주머니 사정이 수습하던 우리나라 다음없이 어려웠던 것으로 느껴진다.

당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남용하던 중앙정보부의 위세도 후석 편집국장에게는 전혀 먹혀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을때마다 후석 국장에 대한 자랑과 존경심이 내마음 한 가운데 가득 자리잡고 있었다. 되돌아보면 후석 천관우 선생은 고품격(高品格)의 인성(人性)과 지성(知性)을 겸비한 언론인이셨다.

권력과 재물의 유혹에 굴절되지 않는 깨끗한 생활, 서릿발 같은 기개에 일관된 지조, 종교적이라고 할 만큼의 진실성과 탁월한 자기 억제력을 갖춘 지성인이자 인격자로 기억되는 선배가 후석 선생 이셨다. 1960-1970년대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동아일보가 최고의 신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후석 천관우 편집국장의 소신있는 보도와 편집 방향의 결과 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실문제에 사자후(獅子吼)를 토하면 서도 국사 연구에 독보적인 족적을 남기신 후석 선생은 다방면에 걸쳐 한국 현대사의 빛나는 중심에 서 계셨다.

그러나 모진 풍상을 이겨낸 80년대 중반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폐암수술을 받고 투병 하시다가 91년 1월 홀연히 타계하셨다.

후석 선생이 가신지도 어언 22주년이나 되었건만 세월이 흐를수록 거목 후석 선생의 모습이 더욱 크고 선명하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K]

DMZ, 평화와 생명, 소통과 화해가 숨쉬는 공간으로...

DMZ 60th year

이제 시작

DMZ 60th

Tour de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 페레이드

5. 25 (토) / 연천 ~ 파주(약 72.7km)

DMZ 60년 사진전

5월 ~ 12월 / 임진각 등

DMZ 국제 심포지엄

7. 23 (화) / 킨텍스

천지진동 페스티벌

7. 27 (토) / 임진각 평화누리

대성동마을 60주년 기념행사

8. 2 (금) / 대성동마을

DMZ 평화 국제 콘서트

8. 3 (토) /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DMZ 청소년탐험대

8. 12 ~ 15 / 평화누리길 중주

통일촌 브랜드마을 개장 기념행사

8. 14 (수) / 파주 통일촌마을 일원

정전 60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

10. 6 (일) / DMZ 민통선 구간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10. 17 ~ 23 / 도라산역, 고양시 일원

안내 문의: 경기도 DMZ정책과 (031-8030-2653)

<http://dmz.g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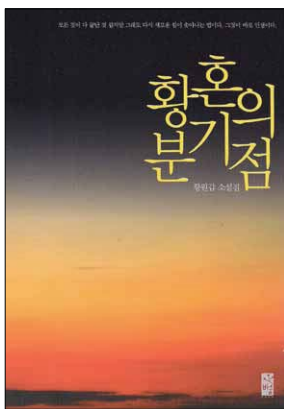
[@ggdmz](#) [f/ggdmz](#)

세계 속의 경기도
Global Inspiration

황원갑 회우 소설집 ‘황혼의 분기점’

황원갑 회우(본회 전문위원·소설가·전서울경제문화부장)가 등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소설집을 펴냈다. 이 작품집에는 모두 22편의 단편소설이 묶여 있다. 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소설 10편은 제1부 ‘현세의 빛’에, 역사소설 12편은 제2부 ‘역사의 그늘’에 실렸다.

이 작품들은 작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월간 문학>, <한국소설>, <예술세계>, <아세아문예>, <계절문학> 등 월간과 계간 문학지에 발표한 소설들이다. 현대소설 10편은 작가가 6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관조한 중후한 인생 역정이 녹아들어 있



다. 또 역사소설 12편도 역사연구가이기도 한 저자의 치밀한 고증과,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역사관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수작들이다.

작가는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그동안 속도감과 박진감 넘치는 문장의 소설들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역사소설을 쓰기 시작

하여 철저한 고증과 독특한 구성으로 수많은 작품을 발표해오고 있다.

“소설은 읽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 또 독자들이 읽으면서 무언가 배우는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작가 황원갑의 문학관이다.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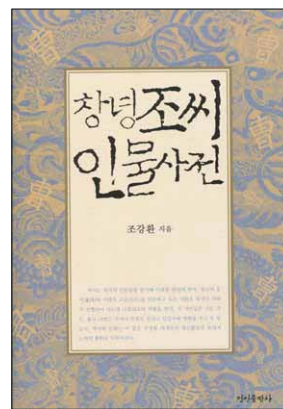
회우들이 펴낸 신간

조강환회우(방송통신연구원장·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가 <창녕조씨 인물사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역대 창녕 조씨 가문에서 배출한 역사적 인물들을 총망라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정리했다.

조민수(曹敏修)장군, 남명(南冥) 조식(曹植), 매계(梅溪) 조위(曹偉), 고당(古堂) 조만식(曹晩植), 조성환(曹成煥), 조봉암(曹奉岩)등 창녕조씨 가문에서 배출한 인물 6백여명의 생생한 면모가 기록되어 있다.

저자는 “역사는 과거의 인물들을 평가해 미래를 판단하게 한다. 역사발전의 주체인 개별 인물들의 진정한 모습을 탐색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조강환 회우 ‘창녕조씨 인물사전’



다. 창녕 조씨 중에는 어떤 인물이 배출되었고, 인류와 국가 민족과 사회를 위해 어떤 공헌을 했는지, 그분들의 사상과 학문과 예술활동, 국권수호와 국토방위 의지 등을 살펴보았다.”고 밝혔다. 어떤 씨족에서 어떤 인물이 배출되었는지를 탐구하는 일은 씨족별 역사로서 한국인물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겠다.

저자는 코리아리서치센터 회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 생활경제TV, 건설부동산TV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방송통신연구원장, 창녕조씨중앙화수회장을 맡고 있다. [출처]

송복회우 부부서예전 대성황

송 복(연세대 명예교수)회우와 부인 하경희 여사(전 이화여대·배화여대 강사)가 6월 19일부터 세종미술관에서 지난 1997년에 이어 16년 만에 두 번째로 가진 ‘송복·하경희 부부 맹자글귀전’이 25일 막을 내렸다.

논어의 유명한 글귀 중 165점을 부부가 나누어 쓴 이번 서예전엔 전시 6일 동안 정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등 각 계에서 하루 평균 150여명씩 1천여 명이 관람, 성황을 이뤘다.

고건 전 총리,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 대한언론인회 흥원기 회장, 조창화 명예회장, 한기호 상담역,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 총장, 손세일 전 의원, 작가 이문열씨 등도 19일 개막식에 참석했다.

송복·하경희 부부는 25일 ‘송·하 부부’ 글귀전 막을 내리며 연세대 제자들과 지인, 친척들에게 120여점의 작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번 ‘송·하 부부 글귀전’엔 특히 캐나다 ‘맥매스터’



서예전 개막케이크를 자르는 송복회우와 부인 하경희여사.

대학에서 중국역사와 철학을 강의하는 아들 송재윤(宋在倫)교수가 마침 이화여대 특강차 나와 전시기간동안 작품안 내와 설명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출처]

‘대상포진’ 예방과 치료법

우리 회원 중 어느 분이 얼마 전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듯 날카로운 통증으로 최악의 공포를 경험했다면서 통증 때문에 마약성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런 대상포진은 유년기 수두에 걸려 신경세포내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균이 수년 내지 수십 년이 지난다음 질병 또는 노화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해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피부에 통증이 매우 심한 붉은 물집들이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주로 50세 이상에서 흔히 발병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80세 이상의 고 연령층이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약 50%에 달한다.

대상포진의 진단과 치료

피부 병변 발생 72시간 내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경과를 단축하고 합병증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다. 치료는 통증 억제, 바이러스 확산과 이차적 세균 감염 억제, 포진후 합병증 예방을 목표로 한다.

합병증 심하면 실명도

포진 후 신경통이 심하면 해당부위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잡아 줄 수 있다. 눈, 귀, 안면, 배뇨중추에 합병증이 올수 있으며 얼굴이나 눈에서 시작된 대상포진은 시력이나 청력 등에 위협할 수 있다. 특히 눈의 홍채가 손상되면 영구 실명할 수 있고 각막염, 결막염, 안검후퇴, 녹내장과 항문주위에 물집이 잡히면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방백신은 효능있나?

백신을 맞으면 일단 대상포진의 예방효과가 70%로 나타났는데 60세 이상 51%, 60~69세 69%의 예방효과를 보였

2013 정기총회, 친목야유회

경향신문

경향신문사우회(회장 김명수·본회 회우)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북한산성 유원지입구에 자리한 투데이스(구 그린파크)에서 2013 총회 겸 야유회를 열었다. 오랜만에 숲향기 물씬 풍기는 야외에서 정운종 본회상임이사(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는 회칙 개정, 사우회 활성화 방안 등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동우회보 32호 발행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광희·본회 회우)는 지난 6월 20일자로 동우회보 32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16면 컬러로 나온 이번 동우회보는 지난 5월 14일 있었던 동우회 2013임시총회 및 단합대회 소식을 머릿기사로 하여 김담구 본회회우의 ‘온고지신’, 김광희 회장의 ‘세정낙수’, 산클럽 장봉도기행, 안평선회우(본회이사)의 ‘그때 그시절 동아방송 남은이야기’ 등이 실렸다.

이종석 본회회우(전 동아일보 논설실장)와 이철희 동아일보 문화부장과와 ‘선후배 대화’와 여영무 본회 논설위원의 ‘명사초청 강좌’ 소식도 눈길을 끈다.

서우회보 22호 발행

서울신문

서울신문 사우회(회장 김문진)는 지난 6월 1일자로 서우회보 22호를 발행했다. 타블로

이드 8면으로 제작된 이번 회보는 신우식 본회고문(전 서울신문사장)의 ‘사우회 6년 회고와 전망’ 제하의 글을 1면 머릿기사로 실었다. 신우식 고문은 ‘사우회 사랑과 열정--그리고 냉담’ 제하의 부제가 달린 이글에서 서울신문사우회에 대한 한결같은 열정을 호소했다.

사우회보 제10호 발행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우회(회장 제재형·본회고문)는 지난 6월 9일자로 타블로이드 8면으로 짜여진 회보 10호를 발행했다. ‘노사 대립 한치앞이 안보인다’를 1면 머릿기사로 한 이번 회보는 제재형 회장의 ‘한국일보의 명예를 되살리자’ 제하의 글과 이태영 본회 부회장의 글이 실렸다. 3면에 실린 영월미디어 기자박물관장 고명진 본회회우의 인터뷰 기사와 4면 이형 본회회우의 ‘한국일보와 백상을 말한다’ 7면 이광영회우의 ‘알츠하이머 치매예방법’ 기사가 특히 돋보인다.

창립 24주년 기념 올진원전 방문

KBS

KBS사우회(회장 정근춘)는 지난 6월 10일 창립 24주년 기념행사로 올진 원전을 방문했다. 선착순 신청에 따라 참가한 180명의 회우들은 올진 원전홍보관에서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발전원리 등을 설명듣고 현장을 돌아봤다.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듯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어린시절 수두를 앓았거나 대상포진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경우 ▶허약하거나 노인인 경우 ▶암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을 의심할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위생관리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거실의 TV 속에도



할아버지의 휠체어에도



posco

동생들의
태양열 온수기에도



삼촌의
플렉시블 태블릿 속에도



누구에게나
포스코가
있다

엄마의 마그네슘 프라이팬에도



누나의 첫 차 속에도



큰 형의 자전거 속에도



공부방의
LED 전구에도



당신은 매일 생활 곳곳에서 수 많은 포스코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신소재, 그린 에너지 사업을 펼쳐가는 포스코.
더 나은 내일로 당신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세계최초 자동차용 초고강도강 등 World First, World Best 제품 양산
해외물류센터 등 고품질 에너지 강재 시장 선점
2013년 WSD(World Steel Dynamics) 세계 철강기업 경쟁력 1위(4년연속)



첨단 신소재

세계최초 리튬 추출 기술 개발(2차전지 핵심원료로 전기자동차, 휴대폰 등에 쓰임) 및 음극재 생산 / 국내최초 마그네슘 제련공장 및 고부가 소재(자동차 강판 등에 사용되는 망간) 생산 / 제철부산물 활용한 탄소소재사업



그린에너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석탄화력 및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 차세대 에너지 연료전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 / 풍력(탐라해상풍력), 태양광 (미국 네바다주,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회우동정 가나다순

휴전 6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 열어



김인규(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전 KBS사장) 회우= 휴전 60주년이 되는 하루 전날인 26일 파주시 도라산 역에서 ‘유엔참전국교향악단 평화음악회’를 연다. 21개국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과 국내연주자들이 ‘무대연합군’을 꾸려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참전국마다 1명 이상의 음악인이 참여한다. 이 행사에는 잊혀가는 6·25 전쟁의 의미를 일깨우고 참전용사 후손에게는 교육으로 보은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노후생활 설계와 인생 삼모작’ 강의



김재일(전 대한언론인회 감사)회우= 코리아타임스를 거쳐 시사저널 정치부장을 지낸 김회우가 최근 단국대 평생교육원 강사로 나가 ‘노후생활 설계와 인생삼모작’을 제목으로 강의한다. YTN TV 특집보도에도 방영됐다.

강원도민일보에 대서특필



박기병(6·25 참전언론인회 회장)이사= 6월 15일자 강원도민일보 1면 머리에 “6·25 춘천대첩 잊으면 안돼요” 인물사진과 함께 대서특필. 진민수 강원도민일보 기자의 보도로 나간 이 기사는 박기병 이사의 춘천대첩 당시의 참전기를 소상히 취재한 것이다. 국방일보도 6월 19일자 7면 통단으로 박기병 이사를 인터뷰 해 실었다.

밀성박씨 정국군과 대종회장



박문두(전 동아일보 영남취재본부 부장대우)회우=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 경남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신남서원 (경남 지정문화재 제256호)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3년 밀성박씨 정국군과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대종회 회장에 피선.

‘통합...’ 출판기념회



송복(연세대 명예교수)회우= 지난 6월 4일 오후 3시 30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통합-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가수 남인수 유적지 답사

안평선(한국방송인회 상임부회장)이사



= 지난 5월 18~19일 고전가요 연구모임인 ‘유정천리’ 회원들과 경남진주의 가수 남인수, 작곡가 이재호 유적지 답사.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위원회에 피선



어경택(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사)회우= 지난 3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정권고위원회에 피선.

경향사우회 발전 공로패 받아



김경래(전경향신문편집국장·사진 위)지용우(동논설실장·사진 가운데)이형균(동 편집국장 전무·사진 아래)회우= 6월 28일 11시 북한산 투데이스(구 그린파크)에서 열린 경향사우회 정기총회 겸 아우회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뉴스엔피플 뉴스사이트 전면개편



여영무(뉴스엔피플 닷컴 대표·남북전략연구소장)논설위원= 6.1 ‘월간 북한’ 6월호에 ‘점증하는 테러위험, 우리는 안전한가’ 제목으로 기고. 6.7 동우회(동아일보 사우회)에서 ‘세기적 대변혁과 한반도통일전략’ 제목으로 강연. 6.12 뉴스엔피플 닷컴 뉴스사이트 전면개편.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전신병(통일교육원 이사)회우= 7월 1일 제16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연예기자 1호 특별 TV대담



정홍택(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회우= 2013년 6월 24일부터 조선 TV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황금편지’에 연예기자 1호로 고정 출연하고 있으며 MBN TV에도 수시로 출연하고 있다.

주소·전화번호 변경

강두모 회우= 경기 고양시 화정동 이종식 원로회우= 010-6266-7450
은빛 마을 608동 202호 김 집 원로회우= 010-2018-7279
김진섭 원로회우= 010-2273-2043

홍원기 회장, 본회 사무실에 대형 TV 기증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최근 대형 TV(LG 제품 32인치)를 본회에 기증했다. 홍원기 회장은 지난해에도 서류함 소파 등 사무실 집기 일체를 기증해 사무실 분위기를 쇄신했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대한언론인회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이창호)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4명의 입회희망자를 심사, 모두 입회를 승인하기로 결의했다.

서병호(徐炳浩)



1938년 6월 30일생
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 아파트 101동 1406호
전화 2297-8787 010-3687-2208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 졸업. 동양통신기자(63), 중앙일보기자(68), 문공부장관 비서관(77), 주영대사관 공보관, 공보처 종합홍보실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객원교수, 케이블TV PP협회 회장

성만복(成萬福)



1936년 11월 6일생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현대빌라 5-129
전화 372-7709 010-7205-1341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대전일보 편집국기자(66), 차장, 동서울지사 정치부장, 서울지사장, 이사, 제일경제 편집국장(96-99)

임종건(林鍾乾)



1949년 7월 7일생
서울 은평구 녹번동 117-25
전화 384-1118 010-3446-2117
중앙대 신문학과 졸업. 한국일보 기자(74), 서울경제 증권, 사회, 정경부기자, 정치부 차장, 한국일보 주간한국 부장 국제2 부장, 서울경제 사회부장 국차장, 논설위원실장, 서울경제 사장, 부회장, 현재 한남대 사회과학대 교수, 신문윤리위원(현)

최명우(崔命宇)



1943년 2월 22일생
서울 중구 필동 2가 17-2 전화 2275-3470 010-3559-4288
서울대 문리대 졸업, 신아일보 기자, 한국일보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 동아부 차장, 체육부차장, 일간스포츠 편집부, 동아일보 조사연구실, 뉴미디어부 편집위원, 편집국 편집위원

회우가족소식

홍원기 본회회장 부인 한영옥씨 개인전 열어

원로한국화가 한영옥씨(대한언론인회 홍원기 회장 부인)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 오는 7월 10일(수)부터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185 인덕빌딩 2층 ‘스페이스 이노’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한지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한씨는 서울대 미술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국전(國展) 동양화 부문과

서양화 부문에 각각 입선한 후 ‘목립회’



전, 한울 회전, 벨 지움국제아트페어전, 한국회화전, 여성 작가전, 조선일보 초대전에 출품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온 원로화가 다. <사진·솔뜨락 변주곡>

본회후원 그랜드콘서트 개최

국가경영포럼(대표이반성목사) 주최 대한언론인회 후원 ‘우리는모두대한민국입니다’를 주제로 한 ‘그랜드콘서트’가 27일 하오 7시부터 KBS공개홀에서 성황리에 거행됐다.

회우 경조사

제재형 본회 고문= 손녀 제영은 양 결혼식 7월 27일 하오 1시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괄호안 납입연도)

김무중(13) 이한수(11,12,13)
김수웅(13) 전남석(13)
박현태(13) 정회준(13)
유지호(13) 조규진(13)
이선희(13) 조성하(13)
이창호(13) 최명우(신입회비)

찬조금 감사합니다

이공규(전 한국기자협회장·전 국회의원)=10만원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화융성
행복풍성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 해?”라는 질문에
매출의 73%, 53조 수출 (2012년)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라는 질문에
16개국 24개 광구, 해외 자원개발

“이산화탄소가 자원이 될 수 없어?”라는 질문에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을 겁니다.
물음이 곧 창조이고 물음이 곧 미래니까.

ASK innovation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 SK 종합화학 | SK 루브리컨츠

